APR 16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798 1982년 4월 15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hursday, April 15,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인 쇄 인 : 박 철 서
광 고 부 장 : 송 광 후

어둠을 뚫는 불굴의 집념
"음악을 통해 세상을 본다"
실명에 가까운 박명진군 바이올린에 전생명

거리를 걸을때나 꿈속에서나 음악만을 생각한다. 깡그리 외운 수십가지 악보·귓전을 울리는 선율속에서 희열과 좌절이 엇갈리는 음악도 박명진군(26).

선천성 백내장으로 거의 시력을 잃은 박군의 세상은 온통 음악뿐. 바이올린은 그의 보람이요, 전생명이다.

12년전 이민, 교민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채 꾸준히 연주실력을 쌓아온 바이올리니스트 박군은 그의 삶이 특이한 만큼이나 분명하게 말한다. "나는 음악을 통해 사물을 보지요. 그러므로 내 음악이 다른 어떤 것, 심지어 종교에 의해서 잠식되는 것도 거부합니다."

캐나다가 낳은 세계적 피아니스트 글렌·굴드, 역시 캐나다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 빅터·마틴을 비롯, 많은 단체, 교회등이 그를 키워주겠다고 제의했으나 그는 특정단체와의 특정한 관계를 거절했다. 그의 말대로 "어쩌면 지금쯤 크게 출세했을 지도 모를"기회를 피한 것이다.

박군이 지원받는 유일한 단체는 CNIB(캐나다맹인후원기구(Canadian National Institue for Blind)뿐이다. CNIB는 그에게 생활비와 불루·머신(맹인용 특수 녹음기)를 지급한다. 작년가을 "구세주"처럼 나타난 캐나다 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 스티븐·스태리(Steven Staryk)도 그에게는 큰 힘이 되어준다. 헨리·쉐링의 음악성, 루이지에로·리치의 테크닉과 견줄만한 스태리은 박군이 지금까지 거친 수많은 선생들에게서 배우지 못했던 점을 가르쳤다. 스태리의 가르침은 박군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 주었고 큰 희망을 불어 넣어주었다.

명진군의 생활은 철저한 음악중심이다. 새벽 일찍 3마일의 조깅으로 시작되는 그의 일과는 요가, 스케이팅,수영, 식사, 수면이외는 거의 바이올린으로 메꾸어진다. 무슨일이 있더라도 하루 4시간이상씩 연습한다. 동생과 둘이 사는 집(토론토 185 Cambell Ave.)의 거실은 그의 음악의 산실이다. 많은 레코드, 큰 스피커들, 바이올린과 몇개의 활이 소박하게 펼쳐져 있다.

온타리오주 윈저에 사는 아버지 박창환씨(예비역육군대령, 전 전남 광주시장)와 어머니 이남선씨, 동생 종수군등과 함께 70년도 경희중학2년때 캐나다에 온 박군은 토론토의 로열·콘서버토리·오브·뮤직에서 6년간 풀·스칼라쉽을 받았다. 그는 키와니스, CNE뮤직경연대회 입상을 비롯, 많은 연주회에 출연했다.

선천적인 병을 고치기 위해 13차례나 수술을 받은 그는 대신 청각과 기억력이 발달했고 특히 손·발이 유난히 커 6살때부터 렛슨을 받았다. 중학2년때 서울 시민회관에서 모짜르트 협주곡 4번을 국립교향악단과 협연한 것을 비롯, 한국에서의 수상, 연주 경력도 무수하다. 그러나 명진군은 당분간 연주보다 스티븐·스태릭에게서 테크닉을 완성시키는데 주력할 예정으로 1년반전부터 연주요청을 일체 거부했다.

가능성이 50%인 백내장 때문에, 결혼도 단념한채 험난한 연주가의 길을 고독하게 걷는 한국계 캐네디언 박명진군은 한인코뮤니티의 소중한 인간문화재로 크게 기대를 모은다.

(조미래·기자)

◆연주회때면 더욱 집중이 잘 된다는 바이올리니스트 박명진군.

한국, 세계최초 노인헌장제정

(서울13일=연합)한국정부는 노인에 대한 거국적인 공경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세계 최초의 「노인헌장」을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보사부가 밝혔다.

"노인은 국가의 어버이"라고 시작되는 이 「노인헌장」은 노인들의 국가발전과 안보에의 기여를 주지시키고, 노후 생활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돼있다.

이의 공포는 5월8일 있게 된다.

현대산업사회에서 노인들의 사회적 지위가 점차 흔들리고 있음을 지적한 이 헌장은 국가는 물론 각 가정이 노인을 공경할 것과 노인들도 여러 각도에서 사회에 기여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으로 돼있다.

◇본사가 도입한 컴퓨터 한글식자기 셋. 가운데 TV화면 앞에 한글자판 키보드가 있다.

—캐나다 최초— 한글 컴퓨터 식자기 가동

"한국일보 글씨체가 달라졌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컴퓨터식자기 때문이죠."

종래의 사진식자기에 의한 본문 글씨체보다 약간 납작납작, 좀더 부드러운 인상을 주는 새 글씨체는 『한글전자동컴퓨터식자기』가 만들어 내는 글씨체이다.(바로 본 기사의 글씨체)

서울 「한국일보사 전산실」이 한국 최초로 개발, 식자분야의 혁명을 일으킨 컴퓨터식자기는 서울본사및 로스엔젤레스미주본사의 기술지원으로 지난 3월15일부터 토론토한국일보사에 설치되어 테스트를 거듭해왔다.

컴퓨터기를 개발한 오동호 본사전산실차장이 직접 와서 1주일간 기술훈련을 지도, 박경숙, 김정숙양등이 현재 손과 「머리」로 익히고 있다. 컴퓨터식자기는 한글타자기를 컴퓨터에 응용한 것으로 문선과 식자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타자치는 대로 이루어진다. 프로그램을 활용해야하므로 담당자의 두뇌도 필요한 것이다.

타자친 글자가 TV화면(CRT)에 나타나서 잘못쳐진 오타, 추가 정정등이 화면에서 직접 교정되며 치는 속도가 숙달될 경우 보통 사진식자기의 속도의 약10배나 빠르다.

컴퓨터기는 최대 72포인트(100급) 크기의 글씨를 찍어 내지만 본사는 광고나 제목의 다양성을 위해 종래 수동식자기를 그대로 계속 이용한다.

캐나다에 처음 상륙한 컴퓨터기의 활용으로 편집시간을 단축하고 좀 더 최신뉴스를 보도하는 본사는 6년전인 76년여사 캐나다 최초로 일본제 사진식자기를 도입 사용해 왔으나 작년부터 주5일 매일 신문을 발행하자 2대의 사진식자기가 기사와 광고를 그날그날 찍어내기에 부담이 컸다.

이때문에 시간성이 비교적 없는 원고등이 식자지연으로 신문게재가 늦어지는 일도 있었다.

본사는 이 컴퓨터가 "기사화할만한 내용만"(All the news that fit to print) "두려움이나 편견없이"(Without fear & favor) 제때에 찍어 내주기를 기대한다.

〈스포츠 퀴즈〉

금년도 NHL 우승팀은?

13일까지 NHL플레이오프 1회전을 치러 8팀이 선정됐으나 금년도 NHL우승팀 예상은 점점 미궁에 빠져든다.

오일러즈, 캐네디안등이 떨어져 나가고 다크호스 미네소타, 위니펙도 자빠졌다. 아일랜더즈만이 겨우 명맥을 잇고 있으나 결코 순탄하게 보이진 않는다.

정답은 오는 4월27일까지 본사 편집부로 보내면 된다. 이 때는 이미 2차전까지 치러 4팀으로 좁혔을 때이므로 정답확률은 아주 높아질 수 있다.

정답자중 2명을 선발 브랜돈 스포츠사(대표 이전영)가 제공하는 테니스슈즈 1켤레 또는 골프용구가 각각 증정된다. 이 밖에 탈락된 20명에게는 대한항공(KAL)이 제공하는 야구모자가 증정된다. 정답자가 적으면 주상품은 다음회로 넘어가고 야구모자는 20명을 선정, 증정된다.

응모방법은 우편에 한해 접수하며 27일 소인분까지 추려진다.

토론토 한국일보사

◆연장전 22초만에 골을 깔고앉는 몬트리얼 골리·웸슬리. 골을 막았으나 골라인을 넘겨 플레이 오프 탈락의 한숨만 지었다. 퀘벡은 이날의 승리로 NHL아담스조 결승진출.

(기사상보 2면에)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Merrill Lynch Royal Securities Ltd.
금은, 주식, Bonds, RRSP에 대한 문의는
361-3428(B), 447-1374(R) : 강 상 욱
RRSP는 왜 남에게 관리시키는가? 자기돈은 자기가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기존 RRSP를 자기관리 RRSP로 옮기는 데는 비용은 전혀 들지않으며, 유지관리비로 1년에 $100만내면 된다. 자기가 관리하니 투자결정은 자기의 원하는대로 할 수 있는 장점이있다.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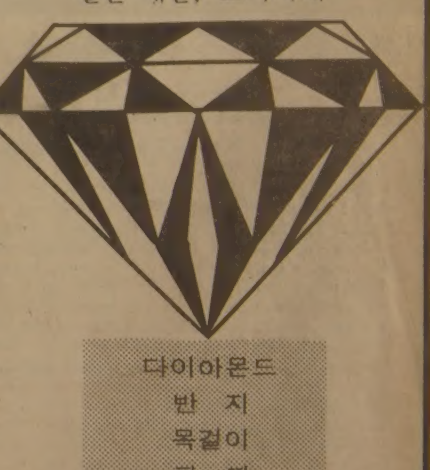
강찬영
변호사
537-3171
~
537-3174
484 BLOOR ST.W.
(Bloor & Bathurst)

김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해병대 창설
33주년기념식및
제4회 정기총회
삼군에 앞장서는 해병이 카나다에서 33년전 한국 진해 덕산 비행장에서 창설한 찬란한 해병대의 전통을 자랑하는 기념식과 총회를 갖게 사오니 해병 전우회원 가족은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할것
일 시 : 1982년 4월17일(토) 오후7시30분
오후 7시30분
장 소 : 크링톤 하우스
693 Bloor St. W.
회 비 : 10불
연락처 : 김 명 정 총무 (652-0370)
"한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
해병 전우회장
남 상 현

특별단체 관광안내
8.15 경축
모국방문단모집
출발일 : 1982년 8월 10일
귀 환 : 자유
요 금 : 그당시 적용되는 가장저렴한 단체요금
정 원 : 30명 (선착순)
특 전 : 8. 15 경축식 참석
관광및 산업시찰 (3 박4 일)
등록마감 : 1982년 5월 15일
예약금 : 1인당 $100.00
※여권및비자일체수속및봉사제공
성지순례단 모집
로마· 이스라엘
출발일 : 1982년5월31일
요 금 : $2,449.00(CAN.
정 원 : 30명 (선착순)
예약금 : 1인당 $200.00
준비물 : 성서와 성가집
쉐타와 가벼운 편한 신발
여행가방은 여행사에서 제공
○로 마 : 4일, 한인성직자의 안내로 쎈·피터 성당, 바티칸 뮤지움등 로마의 성지는 물론 전 시가의 명소지 관광, 입장료, 일류호텔과 교통편 식사, 쇼핑20% 할인등 포함.
○이스라엘 : 10일, 두성직자의 안내로 성서에 나오는 모든명소 성지 일체 순례함, 일류호텔과 교통편, 식사, 입장료, 호텔 써비스등 일체 포함.
※본 여행사에서는 일체 수속과 출발부터 오는 날까지 동반 책임 안내 함
상세한 문의는 전화 : 366-0960, 368-9018 북미여행사로 해주십시요.
북미여행사 376 QUEEN ST. E. (at Parliament)
☎: 366-0960, 368-9018

결혼 예물, 보석시계

다이아몬드
반 지
목걸이
팔 찌
귀걸이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TORONTO B.536-1692 R.245-3539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D2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캐네디안, 오일러 우수수

아일랜더 간신히연명

본사 제2회 스포츠퀴즈 「NHL우승팀 알아맞추기」를 플레이오프 시작전에 했으면 아마 70% 이상이 오답을 적었을 것이다.

하극상도 이만저만한 하극상이 아니다. 각조 1위이며 강력한 우승후보들이 차례로 녹아웃. 우승확률 1/5의 몬트리얼·캐네디안, 1/4의 에드먼튼·오일러, 1/10의 미네소타등이 각조 4위팀인 쾌벡, L.A.,시카고에 1회전부터 떨어진 반면 79-80, 80-81년 2년연속 우승팀이며 금년도 종합순위 1위인 아일랜더스만이 연속 고전끝에 간신히 연장전에서 피츠버그를 눌러 조결승에 올랐다.

몬트리얼의 고전은 예상했으나 몬트리얼의 노장 래리·로빈슨이 후배선수들의 등을 툭툭 치면서 승리에 환호하는 쾌벡선수들과 축하인사를 할 때까지는 믿어지지 않는 한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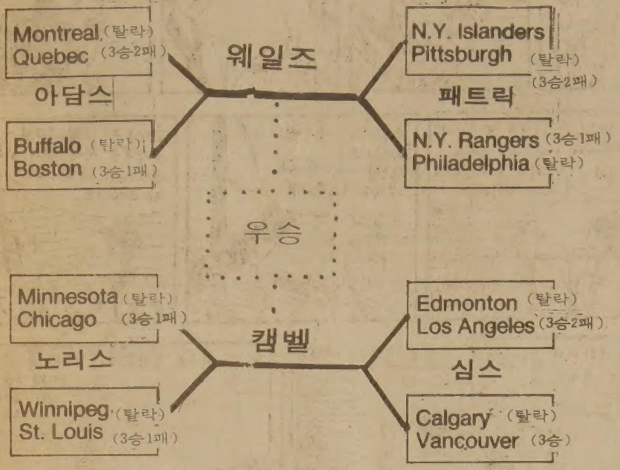
2승2패로 동률을 이룬 몬트리얼과 쾌벡은 13일 몬트리얼·휘럼에서 만났으나 쾌벡의 젊은 선수들이 기백과 골리 부차드의 선방으로 1피리어드에 이미 2:0으로 앞서 나갔다. 3피리어드에서 2점을 따라잡은 몬트리얼은 연장전(Over Time-Sudden Death game) 단 22초만에 한골을 먹어 길고도 지루한 방학에 들어갔다.

13일밤 뉴욕에서 열린 아일랜더스(2승2패)와 피츠버그(2승2패)의 대전도 몬트리얼·쾌벡의 재판. 3피리어드까지 3:1로 리드 당했던 아일랜더스는 맥웬의 골로 3:2로 따라잡은 뒤 이날 수훈선수 토엘리의 동점골 이후 다시 토엘리가 연장전에서 한골을 추가, 4:3으로 극적승리, NHL역사상 최고의 망신을 겨우 모면했다.

한편 에드먼튼에서 열린 그레츠키의 오일러와 L.A. 킹즈의 대전은 1차전부터 회청대던 오일러가 마침내 L.A.킹스에 7:4로 자빠져 플레이-오프에서 마지막 1차전 탈락팀이 됐다.

이와같은 오일러나, 캐네디언, 피츠버그의 탈락에 조용히 박수를 보낸 이들이 있다. 오는 15일부터 필랜드에서 거행되는 세계하키선수권대회의 캐나다 대표팀. 13일 탈락팀중 오일러의 그레츠키, 케번·로웨, 몬트리얼의 밥·게인니, 브라이언 앵브럼, 피츠버그의 골리 미셸·디온을 대표팀의 추가선수도 임시 결정했다.

플레이 오프 대진표



2회전 : 조별우승전 (7전4선승제)
4월 15,16,18,19,21,23,25일

3회전 : 컨퍼런스 우승전
4월27,29일, 5월1일 또는 2,4,6,8,9,11일

결승전(스탠리컵 우승전)
5월13,15 또는 16,18,20,22 또는 23,25,27일

후임교장 물색·학예회등

미시사가학교에서 결정

미시사가한글학교는 지난 9일 이춘수 이사장댁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문가자교장의 후임을 물색할 것과 위니펙 한글교육자대회에 대표를 파견할것 및 학예회를 오는 6월5일 가질 것을 결정했다.

이사회는 문교장이 2년간 무보수로 봉사한 것에 감사를 표하고 후임자가 정해지는대로 직책을 면해주기로 했다.

이춘수이사장과 교사 1명이 파견될 캐나다 전국한글교육자대회는 한인총연합회교육분과위원회(위원장 김원겸박사) 주관으로 오는 5월21일부터 23일까지 위니펙 소재 마니토바주립대학에서 열린다.

70명의 학생을 가진 미시사가한글학교는 매주 토요일 상오9시부터 1시까지 퀸·일리자베스고교(하이웨이 10×사우스·서비스·로드)에서 한글·음악·미술교실을 가지며 7학년 이상 학생들에게는 영어도 가르친다.

많은 교포어린이들은 영어실력 부족으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고전, 씨알한국인학교서도 영어를 가르친다.

교민의 벗
한국일보 · 토론토
구독은…
533 2361

▲ 비엔나로 납치된 폴랜드 비행기.
「안토노프-2」로 불리우는 폴랜드 비행기가 1일 한 폴랜드군인에 의해 비엔나로 납치됐다. 동 비행기에는 10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저공비행으로 체코 의 레이더망을 피해 비엔나에 착륙할수 있었다고.

〈법률상식〉 Legally Speaking 사고승객 법적권리 우선

뺑소니 차에 치여도 보상받을수 있어

(2)법적권리와 책임

오늘은 자전거(모토싸이클)가 관련된 사고에 대한 법적책임에 대해 생각해보자.

주정부는 모토싸이클을 포함 모든 자동차량에(자전거, 모펫제외)대해 보험을 들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사고가 났을경우 관계자들은 보험회사를 통해 배상청구하거나 보상해줄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고시 피해의 종류에는「일반배상금」(General damage)와「특별배상금」(Special damage)이 있다. 일반배상금은 사고로 인한 신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일반배상금의 최고액을 10만달러로 정했다. 특별배상금을 사고로인한 모토싸이클 수선, 직장을 쉬는데 따른 봉급의 수해, 의료비등의 지출이다. 고소를 했을경우 법정비용도 받을 수 있다.

보상청구액이 많을경우 변호사가 필요하다. 모든사고는 24시간안에 보고돼야 한다.

보험회사에는 30일 안에 통고, 권리보호를 받을수있다.

사고피해자나 경찰이 사고를낸 차량의 운전자를발견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운전자와 차량에대한 정화한 정보가 있어야한다. 모토싸이클은 일반 자동차와 똑같이 취급되나 자전거사고는 다른차량의 사고보다 경미하게 취급된다.

사고를낸 당사자는 보상액에 대한 고소를 당하게 되며 형사책임이 지워진다. 예를들어 당신이 술에만취되어 모토싸이클을 몰다남의집 장미화단을 망가뜨렸다고 하자. 장미화단의 주인은 이에대한 배상소송을 할 수 있으며, 경찰은 부적격 운전자로 당신을 기소할 수 있다.「형사책임」에도 두종류가 있다. 도로 교통법(The Highway Traffic Act)은 부주의 운전에대한 벌금조항이 있다. 한편 형사법(The Criminal Code)에는 범죄적 부주의 운전에대한 조항이 있다. 이런 경우 사고자는 벌금만 무는데 그치지 않고 전과기록도 남는다.

만약 벌금선고를 받고도 벌금지불을 기피하면 유에된다.

사고가 났을때 사고를낸 사람과 사고를 당한사람과의 법정문제로 끝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외에도 다른사람들이 연루될수 있다. 예를들어 모토싸이클이 살때부터 불량품이거나정비불량일 경우 모토싸이클 제조업자나 정비사에게 사고의 책임을 물을수 있다. 그러나 다른사람의 잘못이 있더라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사고 당사자에게돌아간다.

사고에 관련된 승객은누구나 소송할 권리가 있다. 만약 모토싸이클 뒤에 애인을 태우고 운전하다 호수에 빠졌다고 하자. 이런 경우 뒤에탔던 애인은 운전자를 걸어 소송할 수 있다.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에게 사고를 당해 피해를 입었을때는「필수적자동차보험법」(The Compulsory Automobile Insurance Act)이 적용할 수 있다. 당신이든 보험은 사고운전자의 신원이나 자동차번호를 모르더라도 이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수 있다. 이것은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알수 있으나 그가 보험을 들지 않았을 경우에도 적용된다.「자동차사고 청구기금」(The Motor Vehicle Accident Claims Fund)이 위와같은 경우 사용될수있으나 대부분 보험으로 대치된다. 결과적으로 타인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부상을 당하고, 그가 도망갔다는이유때문에 고통을 당해서는 않된다. 보상의 길은 활짝 열려있다.

〈편집자주 : 독자중 법률 문제등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위의주소, 또는 본사 편집부 김종환 기자에게 연락하면 이란에 반영된다.〉

수시로 경찰관 모집

에트닉그룹 지원자도 환영

메트로토론토시 경찰국은 수시로 경관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초봉은 연 $22,210이나 1년의 훈련기간이 지난 뒤에는 $24,320로 인상조정된다.

1년에 약 200명을 모집한다는 경찰국의 인사과장 론·메도우 에스퀘터는 "우리는 가능한한 많은 에트닉그룹의 지원자를 모집하려고 한다"고 말해 한국출신 교포들도 선발될 확률이 높다.

이미 지난 80년부터 신체조건이 불리한 소수민족그룹을 보호키 위해 신장, 몸무게등 조건을 없애, 시경찰국은 경관모집의 목적중의 하나는 인종문제를 각사회에 반영시키고 있다.

아직 소수 에트닉그룹의 지원자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고 메도우 인사과장은 밝혔다.

메트로 경찰 지원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캐나다시민 또는 영연방시민권자로서 영주권 소지자.
2. 나이 경찰지원자 : 최소 21세, 경찰학교 신입생 : 최소 17세
3. 품행이 단정한 자
4. 고등학교 졸업자(12학년 졸업)
5. 운전면허 소지자
6. 신체가 건전한 자

모집은 메트로 경찰국 인사과(365 BLOOR ST. E. Suite 908전화:967-2391)에서 항상 접수하며, 심사기간은 6주-8주 걸린다고 한다.

배재동창회

춘계보울링대회

토론토 배재고등학교동창회(회장 손명수)는 봄철을 맞아 동창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17일(토)하오2시 뉴톤블록보울러라마(Newton Blook Bowlerama 5837 Yonge St.)에서 보울링대회를 갖는다.

대회는 남·녀별로 1등-5등까지 트로피가 증정된다.

참가비는 선수당 $10, 여기에는 보울링신발및 음료수도 포함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동문들은 아래의 연락처로 신청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연락처: 부회장(송우진 781-5083), 총무(김정현 924-3905), 체육(라명운 533-6702), 재무(이하현 563-6334), 기획(이동규 929-0630)

해밀턴한인골프협회

총영사배 골프대회

해밀턴한인골프협회(회장 이창회)는 토론토총영사관·해밀턴한인회의 후원으로 오는 5월5일(토) 상오 10시30분 벌링턴 시내 Tyandaga골프클럽에서 총영사배 쟁탈 제3회 골프대회를 연다.

참가인원은 한인골퍼 60명으로 제한하며 참가비는 $30(디너 포함)

시상은 그로스, 네트 A·B·C조 각 1-3등, 롱·드라이브, 니어리스트, 헤이디상 및 부상이 있다.

연락처 : 토론토-김동수(270-5515), 이기훈(298-3584)

해밀턴-차인규(639-0773), 신경순(389-0862), 김형봉(560-6400), 이창회(639-3139).

가장많은 지역에서 가장많이 읽혀지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캐나다소설〉 (146)

사슴을 먹고사는 사람들

팔리·모왓 원작·원제훈 옮김

그러나, 현재의 분석으로는 이위기에 아직은 도달하지 않았다. 내가 이방면의 문제를 과학도로서 2년을 현지에서 보내면서 연구했기 때문에 사슴은 아직도 잘 보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다. 북쪽에는 상당한 숫자의 사슴이 남아있고만일 정부가 전적으로 보호조처를 하면 이들은 곧 안전한 선으로 불어날 것이다. 그리고 재생이 안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것이다. 카리브의 참된 가치는 바렌에 살고있는 에스키모들뿐만 아니라 약4만여명 의 고원지대에서 사는 인디안들과 캐나다 북극 전지역에 퍼져 살고있는 8천여명의 에스키모들의 생존에막대한 영향을 주고있는 것이다. 현재 모든 에스키모들은 카리브를 사냥했던사람들의 후손들이지만 많은 이누이트 족속들이 지금은 바다의 산물에 주로 의지하고 있기도 하다. 실지로 현재 살아남은 모든 에스키모들은 거의가 그들의주식을 사슴이 충분하기만하면 즐거이 또 고맙게 사슴으로 바꿀 사람들이다.

사향소(버팔로)와는 달리 사슴은 사람이 정착할 수 없는 땅에서 살기 때문에 인간들과 땅을 서로 다투지 않아 멸종될 우려가 없다. 바렌은 밀이나 가축을 기른수 있는 조건이 되어있지 않다.

바렌은 단지 한가지밖에는 수확하지 못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슴인 것이다. 바렌은 엄청난 사슴인구를 사육할 수 있는데 아마 5백만두까지는 문제가 없을줄 안다.

일단 사슴이 불어나서이렇게 높은숫자로 돌아올수 있다면 거기에는 다만 보호만 하면된다. 늑대나 원주민들의 비공식 혹은 정상적인 식량공급으로부터가 아니라 우리들 백인으로 부터 보호를 받으면 되는것이다. 직접적으로는백인 사냥꾼들로 부터 사슴을 보호하고 간접적으로는 자동화기와 전문적인 실탄판매로부터 상당한 이익을 보고있는 무기 제조업자들로 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 만일 백인들이사슴을 잡는것을 절대적으로 금지시키고 원주민에게 파는 실탄과 무기의 종류를 규제할수만 있다면 사슴이 나머지 일을 맡아 낼 것이다. 이종류의 동물이 원주민이 복지에 기여하는 지역에서 어떤종류의 사냥도 금지시킬수 있다면 좋을것이다. 당분간 인디안들과에스키모들이 제한된 사냥감에 적응해야되는 곤란한시기가 있겠지만 그들이 바보가 아닌이상 사냥감이충분히 늘어날때까지 조정할 것이다.

우리들이 현재 제창하고있는, 별 효과가 없고 비용이 드는 임시변통이 필요없을것이며 애궂은 늑대를 잡느라고 돈을 지불하는빙충맞은 제도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시기적으로 전염병이 생겨서 북쪽에 살고있는 육식동물들의 대부분의 숫자를 지나치게 줄어들게 하는데 자연법칙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것처럼 그런일을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자연은 이런통제를 매우 훌륭히하고 또 할수있지만우리 사람만은 자연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 자신을 통제해야할 것이다.

정부의 많은 대리인들은 인디안들과 에스키모 들이 현대에 보조를 맞추어 살기 어려울것 같다고 슬프게 불만을 털어놓는다.

메켄지강 어구에 사는아클라빅 에스키모는 예외이나 뜻밖의 환경(백인들로부터의 직접적인 도움이아니라)이 이사람에게 스스로 백인들의 생활방법을채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그들은 이것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 모든 북극의 원주민들은 어째서 성공하지 못했을까? 왜냐하면 굶주림에 처해있는 사람은 마음도 굶주려있기 때문에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라도 굶은 상태에서 어려운 일을 할 수 없을 터이며, 적응하기란 과중하게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잘먹은사람은 이해능력도 빠르고새롭고 이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것이다. 에스키모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계적인것 이외에도 다른 것을 쉽게 흡수하는 놀라운 태도를 가지고 특별히 잘 적응하는 사람들이다. 영양실조와 그에따른 질병에 영향을 받지않은 우리들의 에스키모들은 아클라빅 에스키모들이 여실히입증한것 처럼 백인들의 세상에 맞추어 재빨리 자발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다.

물론 그들이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이글루에서나와 사무실로 하루밤 사이에 옮겨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북극의 원주민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축생같은 노동력, 좀더 좋은말로 표현하면 노예 노동력으로 간주해서 편리한대로 고용하는 우리들의 설계의 한부분에 지나지 않았고, 많은 경우로 미루어 보면 이것, 우리가 원했던 것이다. 이보다 더 좋은 해답은, 현재 이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에 맞추어 경제적으로자립할 수 있는 기초 위에서 서서히 변화될 수 있도 록해야 될 것이다. 이것은되지도 않는 소리같이 들리겠지만 이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캐나다정부와 미국정부에 지난 30여년동안 알려진 것이고 실지로 이 두정부에 의해서 연구되었던 것이다. 나는 알라스카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던 순록목축계획에 대하여 예를들고 싶은데 이것을 캐나다에서 그대로 흉내를내고있다. 이 계획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카리브와 매우 흡사한 아시아의 순록을들여와서 원주민들을 목자로 훈련시키는 계획이다.

각 원주민 부락마다 자기들 몫의 순록을 갖게 해서 이사람들이 필요로한프로테인을 공급할 수 있게 만든다. 동시에 잉여수확을 거두는 대로 현금지불하는 계획인 것이다. 이 계획은 좀 이상하게 발전되었다. 알라스카 에서는 몇사람의 백인손에 넘어가서 자기들 이윤을 채우는 계획으로전락되고 말았다. 캐나다에서는 순수하게 실험단계로시작되있고 현재에도 메켄지 델타 근처에 살고있는 몇안되는 에스키모에게 영향을 주는 실험으로만 제한되어 남아있다. 질차에 상관없이 이 계획은 캐나다에 살고있는 모든 에스키모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수 있는 문제의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고 증명되고 있다. 그러면 어째서 이계획이 더 확장되지 못하고 있는 단한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중요한 이권을 다투는 높으신 어르신네들이 높은 곳에서분명한 목소리로 격렬하게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들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가장 격열했던 사람들은 쇠고기 산업에 관련이 있는 분들이었는데 캐나다는 순록 산업을 허가할 만큼 여유가 없다고 투쟁해 왔다. 그러나 순록산업의 일차비용은 우리가 저축할 수 있는 돈과 현재 자선의 형식으로 도울려는 노력으로대부분 낭비하는 상당한 예산을 남용하지 않고 직접간접으로 쉽게 상환받을수 있는것이다.

약2백만 평방마일의 북극은 완전하고 대대적으로 순록을 기르기에 아주적합하다. 카리브가 많은지역은 점령하고 있지만 그렇지않고 이들 야생사슴의 보존에 순록을 도입하는데 심각한 장애가 되지않는다는 점이다.

순록의 떼를 북극전역에 산업으로 도입하는것은 두가지를 이룩할 수 있다.

민중신문「생활상담」란의 담당목사께 드리는 공개서한

목사님께서는 1982년4월9일자 「생활상담」란을 통하여 저희들의 3월26일자글 「우리는 왜 우리가 몸 담고 있던 교회를 떠났는가?」를 비판, 평가하셨는데 이에 본 서한을 통하여 몇가지 의문점을 제기하고저 합니다.

첫째, 목사님께서는 그글에 대한 총평을 「악취를 풍기는 쓰레기나 인분」으로 묘사하면서 「살인하는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이웃과 사회에 끼치는 것」이라고 하셨읍니다. 목사님께서는 "한인회장"이 아니라 장노교회의 목사이신고로 저희가 목사님께 묻고 싶은 것은 저희의 그글이 기독교인의 신앙에 관한 것임을 감안할 때 현재 목사님께서 소속하고 계신 카나다장로교회의 신앙의 기준(신조)인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나 그밖에 교회에서 귀히 여기는 "사도신경", "니케이야신조", "아타나시우스신조", "칼세돈의 결의", "도르트대회의결의", 기타 「칼빈」의 "기독교리강해"등에서 나타내 보인 신앙내용에 저희의 그글이 위배되는 것인지 또 위배되는 것이라면 어떤점에서 그러한지를 지적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저희들은 저희의 글이 상기의 장로교신앙고백서와 기타 역사적으로 장로교회가 귀중히 여겨온 신앙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바 하나님나라의 사상과 의도를 잘 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장로교회의 신앙과 가르침을 천명하는 글에 대하여 장노교회의 목사님이 「악취가 나는 인분」으로 비유한다는 것은 그러한 장로교신조와 신앙내용을 목사님자신이 정말로 「인분」으로 생각하고 계시든가, 아니면 장로교회에서 무엇을 믿는지조차 전혀 모르는데서 연유된것이든가 둘중 하나로 사려되는데, 어떤 것입니까?

둘째로, 목사님께서는 저희들이 주장하는 「기독교신앙의 '순결성」은 높이 평가하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사랑으로 하나되는것」이라 하여 사랑이 순결보다 앞선다고 하셨읍니다. 그러나 우리주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계명 즉 첫째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하신것과 또 둘째는 "네이웃을 네몸과 같이 사랑하라(마태22:37-39)"를 우리가 순종하며 지킨다 할때 그순서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그사랑을 연장하여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읍니다. 이에 반해 목사님께서는 이웃사랑을 더 강조하고 계십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나라들에 동화되어 사신우상을 섬기면서 또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겠다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사실을 성경 여러곳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라 하는 교회가 사랑을 더 내세워 그순결을 버릴 때 그것은 신부가 아니라 창녀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는 또 「비진리와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는 이어서 「조금만 다르다고 해서 헤어져야 하고…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며 신앙이 다른 이웃과 함께 같은 공기를 호흡하며, 또 한직장에서 일하면서 같은 시민으로 살아 갈수 있겠는가?」라고 쓰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저희의 글이 「비진리와 타협않겠다」는 목적밖에는 다른 의미가 없다는 것을 쉽게 간파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마치 서로 다른것은 무엇이든 무조건 다 배척하는 극단주의자들인것처럼 독자들을 오도하고 계십니다.

비진리와 타협않겠다는 것이 어찌하여 곧 사회를 등진 「외톨이 인생」을 사는것이 됩니까? 예수님께 대한 순결때문에 핍박받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처럼 보잘것 없는 외톨이 인생들이었단 말입니까? 「순결성을 저키는 신부」즉 참 교회의 일원이라 할찌라도 인간에 대한 따뜻한 사람의 심정을 갖고 한국가의 건실한 시민으로서 또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이와같은 생각은 곧 우리의 사회관이기도 한 것입니다.

셋째로, 목사님께서는 장노교회의 교역자로서 연합교회의 교리를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읍니다. 저희들이 그글에서 지적했던 문제는 "성경에도 틀린데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예수님에 대한 연합교회의 이해 즉 그 기독론의 비정당성이었읍니다. 또 이와 같은 연합교회의 신조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주장한 것은 목사님께서 현재 소속하고 계신 장로교회의 신조에 그근거를 둔 것이었읍니다. 이러한 저희의 주장에 대하여 「악취가 나는 쓰레기나 인분」이라 하신다면 목사님의 성경에 대한 이해나 기독론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성경의 권위와 예수님께 대한 목사님자신의 이해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그글에서 연합교회 기독론의 일부인 "인성"만 다루었다하고 그의 "신성"을 설명한 곳도 있다고 하면서 저희가 마치 독자들을 오도시킬 목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단정하시는 듯한데, 이는 그 "신성"이 무엇인가 알아본 사람은 누구나 쉽게 저희의 글이 편파적인 기독론을 말하고 있지 않음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연합교회에서 말하는 기독론을 저희가 이해한 범위내에서 논해 보겠읍니다. 먼저 「인간론」으로서 연합교회신조해설을 보면 "하나님이 생명의 호흡을 사람에게 불어 넣었다(창2:7)'함으로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본질에서 유출된 것이라 주장합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다소나마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기독론」에 들어가서는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진것과 같은 신성을 갖되 충만히 가진 분"이라는 범신론적인 사상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수 있읍니다. 이러한 사상은 「어거스틴」선생때에 「마니」교 사람들이 주장했고 16세기 「칼빈」시대에 와서는 「세르베터스」가 다시 전파하려던 사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무한정한 신성의 어떤 면들이 인간에게 전달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은 질적인 관점에서 그런것 뿐이고 그 본체(Substance)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적인 은사로서 우리인간들을 장식한 것은 사실이나 인간이 창조자의 본체의 일부를 분할해서 소유한다는 사상은 바르지 않다고 믿는 바입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와같은 신성을 충분히 가지신 분이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인 까닭에 죄로인한 부패의 결과인 정욕도 갖었다"는 기독론은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 한결 같이 시험(정욕으로 인한 유혹이 아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히브리 4:15)"하는 성경사상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악과 함께 하실수 없는 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위의 기독론은 "예수님안의 하나님은 악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장로교회의 신앙으로서는 그들의 인간론, 기독론등을 받아들일수 없다고 저희들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끝으로 목사님께서는 저희에게 "연합교회신세를 이단시하며 지나친 공격을 했다"고 하십니다. 저희들로서는 연합교회보다는 저희가 몸담고 있던 교회나 그외 복음주의 신앙을 표방하는 많은 교회들이 말로는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바로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실들을 발견, 통탄히 여기면서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저희가 다니던 교회는 물론 목사님께서 시무하시는 그교회를 비롯한 복음주의라 자처하는 교회들을 염두에 두고 쓴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곳 연합교회에도 진실된 하나님의 종들이 많고 주께서 구원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많이 있다고 믿고 있음을 부언하는 바입니다.

개혁장로교회 이태영 김상융 이웅천 드림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年$99, 月$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쿠킹·식당·패밀리룸등 다양한 용도

부엌을 새로 꾸미려면…

리빙

조명은 밝기 조절할 디머스위치로
쇼핑해온 음식 쉽게 저장할수 있게
벽에 기구걸어두면 실내장식 효과

부엌은 집전체에서 가장 다양한 용도를 가진 방이라 할수있다.

쿠킹장소일뿐 아니라 식당과 패밀리룸역할을겸하기 때문.

이미 스토브나 오븐, 디쉬워셔등 부엌기구가 붙박이 되어있는 내부장치를 변경시키기는 힘든일이지만 이런경우엔 색깔이나 부속장식으로 산뜻한 변화를 줄수있다.

즉 빛깔이 맞지않는 냉장고나 스토브는 방열페인트(Heat Proof Paint)로, 찬장(Cabinet)은 방수페인트(Water Proof Paint)로 다시칠하고 손잡이등만 바꾸어달면 시간과 경비를많이 들이지 않고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수 있다.

그러나 부엌을 새로꾸미는 경우엔 다음의 몇가지를 염두에 두는것이 바람직하다.

부엌은 근처에 쇼핑해온 음식을 쉽게 저장할수있는 장소를 마련할것.

요즘은 리빙공간이 좁아졌기 때문에 식품저장캐비넷이나 클로젯(Closet)의 문안쪽으로도 선반을 달아 병이나 깡통음식을 저장하도록 디자인하고 있다.

또 부엌의 벽이나 천장에 냄비나 주걱등

부엌기구들을 걸어두면공간만 이용할뿐 아니라 생기있는 실내장식으로도 즐길수있다.

부엌벽은 뜨거운 열에 견딜수있고 음식이 튀기면 쉽게 닦아낼수 있는 세라믹 타일이나 스테인레스 스틸이적합하다.

뜨거운 열을 받지않는 부분은 비닐이나 방수처리된 나무 혹은 물로 닦기 좋은 세미글로스(Semi-Gloss)페인트가 좋다.

바닥은 질기고 물기나 기름을 흡수치 않으면서도 발이 편한 질감이라야 한다.

쉬트나 타일로 된 비닐, 비닐콜크, 테라코타타일 혹은 미끄러지지않는 세라믹타일등이 튼튼하면서도 보기에 아름답다.

음식저장장소나 조리대가 스토브로 부터 3피트이상 떨어지지않아야 편리하며 부엌기구와 기구사이에 사람이 다니면서 일 할수있는 거리는 적어도 4피트가 되어야 두사람이 음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불편치않다.

왔다갔다하며 음식을 준비하는 거리는 15-20피트를 넘지말아야한다.

부엌조명은 밝기를 조절할수있는 디머스위치(Dimmer Switch)를 쓰면 효과적이다. 특히 부엌에 식당이 겸해있는 경우, 손님을 청했을때 부엌불은 어둡게 조절하고 식탁에만 불을 키면 훨씬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수있기 때문.

음식의 색깔을 달리보이게하고 특히 고기빛깔을 죽이는 형광등은 피하는것이 좋다.

부엌창은 가능하면 아침햇살을 받는 동쪽창문이 좋겠고 커튼보다는 더러움 덜타고 환기시키기 좋은 블라인드가 적합하다.

부엌공간이 허락하는대로 한가운데 테이블을 놓으면 가족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아늑한 코너노릇을 할뿐 아니라 부엌일에도 상당히 편리하다. ―L.A지사―

◆부엌 한가운데 테이블을 놓으면 훌륭한 패밀리룸 역할도 겸하게 된다.

「숏커트」붐

풍성한 머리결이 물결처럼 춤추는듯…

80년대 헤어스타일

60년대 유행했던 숏커트 헤어스타일이 요즘 되돌아왔다.

그러나 고르고 정적이었던 60년대 숏커트와는 달리 요즘의 숏커트는 풍성한 머리결이 물결처럼 춤추는듯한 질감이 포인트다.

머리앞쪽 윗부분은 풍성한 숱을 강조하고 옆과 뒤는 귀를 활짝 드러낼 정도로 짧게 쳐내고 있다.

가수 올리비아·뉴톤-존에게 이 새로운 숏커트를 시도한 웨스트헐리웃의 헤어스타일리스트 알만도·코시오는 『깃털처럼 보이는 질감을 강조하기위해 머리형을 마무리할때 젤이나 오일을 쓰기도한다』고 말한다.

베버리힐에서 살롱을 경영하는 짐·피셔는 『놀랄만큼 많은 여성들이 요즘엔 짧은 머리를 원하지요. 머리를 짜르는것이 일생일대의 중요한 결정이 아니라는것을 이제야깨달은것처럼 말입니다. 머리란 또 자라는것이니까요』라고 전한다.

숏헤어의 컴백은 되돌아온 미니스커트와도 물론 연관지어진다.

짧은 스커트나 숏팬츠와 균형을 이루자면 자연 머리가 짧아야하기때문이다.

베버리힐「조셉·마틴」살롱의 조셉·컨델은 『요즘의 미니가 귀엽고 볼륨있는 스타일인것과 같이 새로운 숏헤어도 쇼킹한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맨틱한 분위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한다.

스투디오시티「파피용」살롱의 짐·엔카오는 숏헤어와 경제상황을 연결시킨다.

『짧은 머리는 단정하지요. 요즘같은 불경기엔 사람들이 직장구하느라, 사업돌보느라 바쁘기 때문에, 긴머리에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으니 자연 짧은 머리를 택하는것입니다』

숏헤어가 불경기와 관련이 있는지, 미니패션과 균형을 맞추기위한것인지 그 원인을 확정짓기는어렵지만 요즘 여성들이 머리를 「짧게, 더욱 짧게」 짜르는 붐이 일고있는것만은 사실이다.

프린시펄과 不和 歌手 앤디·깁 돌연 TV쇼에 안나타나 話題

◉…빅토리아·프린시펄(32)과의 불화로 충격을 입은 가수 앤디·깁(24)이, 그가 호스트를 맡은 TV쇼 「솔리드 골드 쇼」와 노래를 불러주기로 했던 아메리칸·무비·어워드 시상식에 나타나지 않았대서 화제.

브래드·풀이 대신 노래 부를동안 깁은 자신의 말리브비치자택에 있었는데, 이유는 순전히 프린시펄이 남겨준 충격때문.

이들은 그동안 여러차례 싸우고 또 화해했으나, 이번에는 마지막일 것으로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것. ―L.A지사―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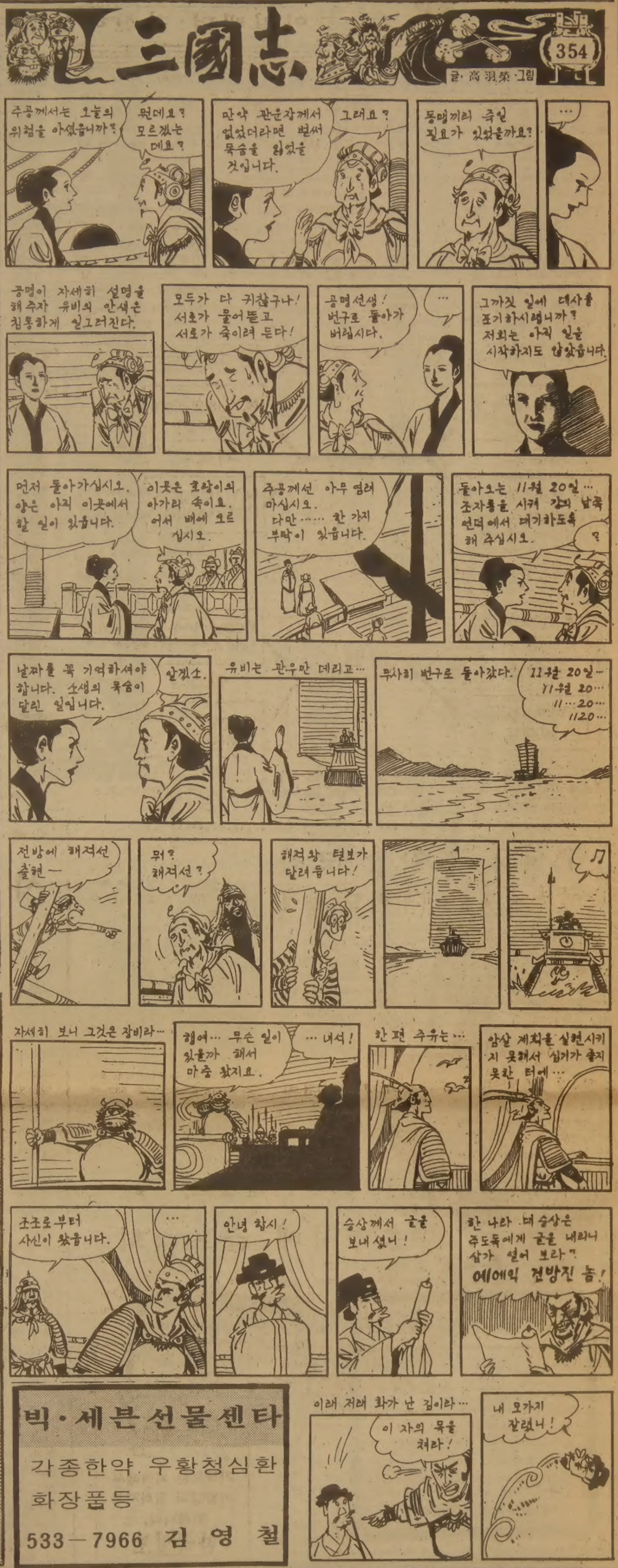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저렴한 가격、성심성의껏、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영철

점심특별스페샬

기 간 : 1982년4월 말 까지

시 간 : 12시~오후2시까지(월~금)

$3.50 : 냉면, 짜장면, 곰탕, 짬뽕, 계장백반

$5.00 : 유부초밥, 생선초밥, 회덮밥, 김초밥

○ 해장국개시는형편상 4월말로연기합니다. ○

한국서 일류요리사 한국관에 오다!

한식및 궁중요리사 : 김옥자 • 일식전문요리사 : 김우현

한국관 대표 : 나옥녀

•영업시간• 오전11시~새벽1시

628 BLOOR ST. W. ☎ : 536-0290, 531-0277

공고

전번 4월8일 한인신용조합 제6차 조합원총회에서 임원이 개선되었기에 개선된 임원과 더불어 전임원을 공고합니다.

이사 : 한상훈	대출위원 : 김창범
김학량	최태권(신임)
이홍렬	김종조(신임)
윤호영(연임)	
김장환(연임)	감사위원 : 심재환(신임)
서준경(신임)	방남주(신임)
김병권(신임)	정필주(신임)

한인신용조합이사장 한상훈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정직·秩序·창조… 새價値觀 정립
"意識改革운동 強力추진"

◇10일열린 올해 제1차 司正協議會는 意識개혁을위한 실천요강으로 正直, 질서, 創造, 책임, 本分, 분수, 主人意識, 국민화합, 가정교육등 9가지를 채택했다.

"全公職者·지도층부터 솔선 어떠한 代價치러도 꼭 達成"

全대통령, 司正協議會에지시

全斗煥 대통령은 10일『우리 사회에 뿌리깊은 否定意識의 殘滓를 과감히 추방하고 정직·질서·창조의 새가치관을 국민의식속에 뿌리내리게하는 意識改革운동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이를 민족적 국민화합차원에서 기필코 달성해야할 역사적 대과업으로 昇華發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금년도 제1차 司正協議會전체회의에 즈음하여 이같이 밝히고『본격적인 의식개혁은 5천년역사를통해 우리겨레가 최초로 시도하는 민족의 숙명적대과업인만큼 국가의 발전과 민족의번영을위해 어떠한 희생과 代價를 치르더라도 이를 기어히 달성할수있도록강력히 추진해나가라』고 지시했다.

全대통령은『제5공화국出帆이후 우리국민과 정부의단합된 노력으로 特權의식과 부정부패가없는 새정치풍토와 깨끗한 정부의 실현을위한개혁작업이 알차게 진행되어많은효과를 거두고있다』고말한후『그러나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역사적으로 누적된否定意識의 殘滓가 뿌리깊게남아있기때문에 이에대한 根源的인 治癒가 선행되지않고는 정의사회구현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全대통령은 또『개혁의식은 단시일내에 이룩하기는 지극히 어려운 과제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세대가 역사적 召命의식을 갖고 반드시 성취해야할 시대적 대과업임을 깊이 명심, 대통령인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공직자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뼈를 깎는 고통을 각오하고 의용기와 인내심을 가지고 의식개혁에 솔선하여 앞장서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의식개혁추진 指針으로 ▲나자신과 내가족으로부터 출발, 사회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자기주변의 가장 가깝고 쉬운 과제부터 실천, 위로부터 아래로 파급시켜 일상생활속에 체질화되도록 장기적안목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해설3면

全대통령은 특히『모든 공직자는 역사적 소명의식아래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고 개혁의식의 一大轉機가될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최선봉의역할을 수행하라』고 당부하고『각계지도층인사는 국가사회에대한 책임감을 절감, 비장한 각오로 의식개혁에 솔선수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의식개혁운동의 범국민적 추진을위해 全대통령이 지시한 실천방안은 다음과같다.

▲모든硏修기관을 총동원, 의식개혁교육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할것▲公私의 모든사회단체가 求心點이되어 의식개혁추진의 핵심역할을 담당할것▲각급행정기관은 의식개혁에 관한 사항을 바르게 실천하는 국민이 혜택을 볼수있는 사회적환경 여건을 조성해나갈것.

秩序의 體質化등 다짐

올해 첫司正협의회 9개 실천要綱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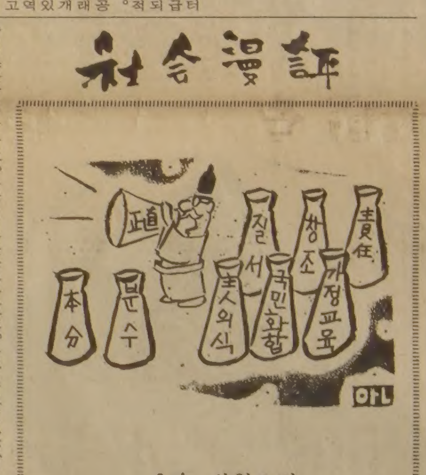
정부는 10일상오 서울三淸洞南北對話사무국회의실에서 올해 제1차司正協議會를 열고「正義사회구현을 위한 意識改革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許三守청와대 司正수석비서관주재로열린 이날회의에서는 모든공직자의 청렴의무준수와 질서생활의體質化, 각자가 자기본분에 충실하여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수행할것등을 내용으로하는 意識개혁9大實踐要綱을 채택했다.

司正협의회는『오늘 우리사회에 만연되어있는 舊時代의 뿌리깊은 否定의식의 잔재를 조속히 청산하고 88올림픽개최와 80년대의 고도산업화, 자율화, 국제화등 급속한 사회변화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해서는 意識의先進化가 절실히요망된다』고 결론짓고 과거의 각종국민운동이나 수차에걸친 庶政刷新노력의 실패경험을거울삼아 이번만은 어떤 어려움과 희생이 있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우리세대가반드시성취시켜야할 역사적과제로 규정했다.

협의회는 의식개혁 작업을 강력하고 체계있게 추진키위해 ▲社會淨化委는 지침에따라 의식개혁추진 종합계획을 수립, 4월중순부터 시행하고 ▲各部處廳과 산하기관, 사회단체, 각급학교, 모든硏修기관은실정에맞는자체계획을수립, 추진하고 ▲각종행정지도나 감사때는 반드시의식개혁에대한계획, 실천, 성과등에대해 지도와 확인점검을 계속실시하도록 관계기관에 시달했다.

社会漫評



9大 실천요강

"地下鐵사고 교훈삼아야"

全대통령, 釜山·慶南순시서 強調

【釜山=尹國炳기자】全斗煥대통령은 10일상오 釜山시청을 순시, 金武然시장과 관계국장으로부터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 釜山市 지하철건설현황에 관심을 표명,『서울지하철 공사장붕괴사고를 교훈삼아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하고『釜山에는 高地대와 영세민밀집지역이 많은만큼 특히 上·下수도 시설계획에 차질이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 그린벨트에 대한 보존책을 철저히 강구하도록 거듭당부하면서『앞으로 환경오염이 큰문제가되기때문에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린벨트지역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

【釜山】全斗煥 대통령은 10일하오 경남도청에들러 崔鍾浩지사와 관계국장들로부터 道政보고를 받았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 赤潮현상등으로 바다의 피해가 많은데 그 원인은 도시의 폐수등에 있다고 지적, 鎭海·馬山·忠武시등의 오물및 폐수처리를 시급히 단속하여 한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맑은 한려수도를 관광지로서 깨끗하게 보존하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상습한해와 수해에 대해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대비책을 강구하고 세계적인 이상기온현상에 대한 대책도 연구하라고 지시했다.

亞洲 監査院長회의 24國참가 내일開幕

제2차 아시아지역 監査院長회의(ASOSAI)가 12일상오 감사원 강당에서 24개국, 6개 국제기구 대표등 1백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된다.

北傀 崔賢病死

【서울=聯】北傀黨 중앙위政治局員이며 軍事委員인 崔賢이 지난9일하오 75세의 나이로 病死했다고 10일 北傀방송들이 보도했다.

英·아르헨 決戰태세 強化

美조정 失敗대비 特攻隊증파·機雷부설 맞서

【런던·부에노스아이레스9日UPI·AP=聯合】아르헨티나와 영국은 포클랜드군도 영유권 분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미국의居中조정노력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 9일 예비군동원령을 발표하거나 포클랜드 해역에 海軍특공대등을 추가파견했다.

아르헨티나정부는 이날 민간방송들을 통해 전국에발표한 포고령에서 10만여예비군에 대해 이날 정오까지 소속부대에 신고하라고지시했다.

이에대해 영국은 이날세계3대호화여객선의 하나인 캔버라號(4만5천톤)편으로 해군특공대와 공정여단들의 2천병력을 포클랜드해역에 추가파견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10日聯合=】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군도를 중심으로 한 특별작전구역에 기뢰를 부설했다고 아르헨티나의 텔람통신이 군사소식통들의 말을인용 10일 보도했다.

이통신은 기뢰부설구역이 육지인지 해저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않았으나 영국군이 포클랜드군도를 탈환하려할경우 막대한손실을 입게될것이라고밝혔다.

영국은 현재 27척의해군함정과 군병력 항공기등을 포클랜드해역으로 급파중이다.

이 통신은 또 아르헨티나 당국이 기뢰부설외에도 전투기배치 적군위치 탐지장비등 이미 견고한 방어태세를 끝냈다고 덧붙였다.

홍콩方式통치 거부

【부에노스아이레스9日聯合=】포클랜드 군도를 무력점령한 아르헨티나는 이들섬에 대한 홍콩방식이나 안도라式관리를 수락하지않을 것이라고 아르헨티나 정부소식통들이 9일 밝혔다.

외교소식통들은 앞서 미국이 포클랜드 군도점유권을둘러싼 英·아르헨티나 분쟁을 해결하기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같은 관리방안을 제의했다고 전한바 있다.

헤이그、아르헨 到着

시민들 때맞춰 守護결의 示威

【부에노스아이레스10日UPI=聯合】포클랜드 군도영유권을 둘러싼 영국—아르헨티나간 분쟁해결을 위해 중재외교에 나서고있는 헤이그 美국무장관은 9일저녁(한국시간 10일상오)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도착했으며 수천명의 아르헨티나 시민들은 이에 맞춰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수호결의를 헤이그장관에게 인식시키기위한 시위를 벌였다.

영국과 아르헨티나 양측이 포클랜드군도를 위해 일전을 불사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런던으로부터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한 헤이그장관은 짤막한 비공식도착성명을 통해『미국과 아르헨티나는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협력해온 서반구의 동반국가』라고 전제,『최근 수개월동안 더욱 강화된 이관계가 분쟁방지를 위한 훌륭한 토대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美 해외基地 고용자·軍당국紛爭 최종 仲裁역할 國防省에

【워싱턴9日=聯合】美국방성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주둔 미군기지에 고용된 미국민간인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조와 군당국간의 분쟁에대한 최종중재자역할을 국방성에 부여하는 대통령령을 내려줄 것을 레이건 대통령에 요청했다고 워싱턴·포스트지가 9일 보도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한 알렉산더·헤이그美국무장관이 니카노르·코스타·멘데스아르헨티나外相의 영접을 받고 함께 걷고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10日UPI電送=聯合】

社告

百想追念 語錄書藝展

故人의 5周忌맞아 오늘부터 百想기념관서

頂上바로直前이가장重要한瞬間이다大膽하고小心하라

新聞記者는新人이라야한다

한국일보의 創刊發行人인 百想 張基榮社主의 5周忌를 기념하는「百想追念語錄書藝展」이 故人의 忌日인 11일부터 百想紀念館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故人이 생전에 남긴 갖가지 人生訓을 국내 書藝界의 元老·重鎭(名單別記)들이 직접 써서 마련한 이 書藝展은, 폭넓은 인생을 바쁘게 살다간 故人을 추념하기에 알맞은 조촐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전시될 語錄들은 모두 國漢文 倂書로 된「작품」으로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색다른 書藝展이기도 합니다. 전시회 기간은 11일부터 17일까지이며 전시회의 개회식은 12일(월) 하오3시 百想紀念館에서 갖습니다. 故人을 追念하는 이 자리에 많은 참관과 격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開會式은 내일 下午3시에

<出品 作家 명단<無順>>

一中	金忠顯	景岩	金相筆
東江	趙守鎬	松石	鄭載興
南丁	崔正均	雨林	金鎭祥

한국일보社

地平線

72년 늦여름 南北赤十字 제1차 본회담을 취재하던 우리 기자단은「붉은牧師」康良煜과 만났었다.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어딘가 촌스럽던 그의「牧師티」가 지금도 선하다.

당시 무슨 통일전선 의장이던 그를 마주친것은, 그가 주재한 어느오찬회 뒤끝—. 그때 그로서는 인사나 나눌 셈을 했을지 모르나, 기자들이「大魚」를 놓칠세라 질문을 던졌다. ▼『북한의 기독교계 현편은 어떤가?』『당신들이 더 잘 알 것이다』『거리를 다녀봐도 교회를 볼수 없던데…』『당연하다. 전쟁때 다 파괴됐으니까』『새로 지을 생각은 없는지…』『그건 모르겠다』그는 웃으며 대답했으나, 한대목에 짜증을섞었다.『(지금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있는가』『내가 목사인데 안믿을수 있나』목사를 자처하는주제에, 그는 애써 북한에 교회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5일 열렸던 소위「최고인민회의」에서도「부주석」감투를 유지했다. 金正日이「부주석」으로 들어 앉았다면, 8旬이 다된 그의 자리가 어찌됐을지는 알수가 없겠으나, 그는 아직은 金日成·金一 다음가는 서열3위다. 아마 그가 오래연명하는 까닭은 그가 金日成의 외조부뻘인 것, 그밖에 공적을 쳐준다면 스스로가 목사이면서 앞장서서 교회를 부인한 것뿐일 것이다. ▼그 康良煜이 보았다면 의아했을 소식을, 근래 워싱턴發외신이 전해왔다. 미국의 그리스도 연합교회와 연합장로교회가 조사한 세계의 종교자유실태보고서가, 지난1년동안 종교탄압이 가장심했던나라 13개국을 꼽는중에 북한을 알바니아다음으로 든 것이다. 바하이교도를 무수히 투옥·처형했다고 지적된 이란이 그리스트 중 5위에 머물렀으니, 북한의 순위는 아주 높다. 그러나 康良煜의 소신대로 한다면, 북한에는 교회도 없고, 따라서 탄압도 없어야옳다. ▼이 보고서는 또 신앙인의 권리가 침식될 우려가 있는「要注意국가목록」에 미국을 포함시켰다. 조금 뜻밖이지만, 가족계획법등의 입법추진이 그 이유라고한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戒律과어긋나는 實定法의성립을 경계함일것이다. 그처럼 實定法과 敎會法은 맞설 수가 있다. 실제로 그런 경우를 당하여 논의가 많았던 1주를 보내고, 우리는 오늘 부활주일을 맞는다. 일이 고비를 넘긴 안도감과 함께, 도대체 그런문제가 있을 수도 없는 북녘땅에 생각이 미친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Y—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 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민 영 숙
(B)368-7961 (R)690-5217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416)533·2361

공고

장한어머니·아버지및 착한어린이표창

취지 금번 한인회에서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민생활 여건속에서도 어머니로서의 위치를 잊지않고 꿋꿋하게살아 남에게 모범이되고 가정을 올바로 이끌고 나아가서는 사회에 봉사한 장한어머니를 찾아 그 공을 높이 자랑하고 표창하고자합니다. 그리고 어린 새싹으로서 열심히 배우고 배우고 착하게 밝게 성장하는 착한어린이를 찾아서 표창하고자 합니다.

〈장한어머니상〉

현모상 : 현명한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정성껏 교육시켜 학교나 사회에 이바지하게한 공이 큰 어머니.

효부상 : 부모님을 극진히 모셔서 이웃이나 사회에 모범이 된 어머니.

봉사상 : 가정을 지켜가면서도 사회활동봉사에 솔선하여 공을 세우고 자랑할만하여 특히 한인사회 행사에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은 어머니.

〈장한아버지상〉

현부상 : 현명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원만히 다스리며 자녀들을 정성껏 교육시키는 아버지.

효부상 : 부모님을 극진히 모셔서 이웃이나 사회에 모범이 된 아버지.

봉사상 : 가정을 지켜가면서도 사회활동 봉사에 솔선하여 공을 세우고 자랑할만 하여 특히 한인사회 행사에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는 아버지.

〈장한어린이상〉

근면상 : 교회나 학교, 한글학교를 착실히 빠지지 않고 다니며 모범이 되는 어린이.

봉사상 : 궂은 일을 앞장서서 말없이 잘하고 친구를 도우는데 앞장서는 어린이.

우등상 : 남보다 뛰어난 재간이 있고 열심히 그 재간을 키워 모범된 상을 여러번 탄 어린이.

이상이 추천의 내용이 되겠으며 다음 형식에 따라 추천의 내용을 상세히 (예 : 날자, 장소, 증인) 명시하여 5월3일오후5시까지 한인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장한어머니, 착한어린이 이름(　　)	생년월일(	
주소 :	전화	
1. 추천자 이름	소속직장	전화
2. 추천자 이름	소속직장	전화
추천내용		

토론토지구한인회회장 박인순

국민의식 先進化의 轉機

「意識改革운동」背景과 意義

고질적 좀定심리 근원제거

主人意識갖고 非理·無秩序등 추방

司正협의회가 全斗煥 대통령의 지시에따라 금년도 첫회의를통해 正義사회구현을 위한 意識개혁지침을 마련한것은 국민의식의 先進化를향한 한 轉換期的 의미를 지니고있는것으로 평가된다.

또 이 의식운동은 한마디로 舊시대의 의식을 새시대의 先進의식으로 刷新시키기위한 의식혁명의 시발로도 볼수있다.

과거에도 庶政쇄신운동을통한 부패의 제거라든가 각종국민운동을통한 의식개혁움직임이 없지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강력하고 지속적인 실천의지의 缺如와 無計劃性에따라 실효를 보지못한것이 사실이다.

이에비해 이번 의식개혁지침은 全대통령자신도 밝혔듯이 어떠한 희생과 댓가를 치르더라도 기필코 달성한다는 확고한 실천의지를 담고 있으며, 또 시대적 대과업으로 인식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실천계획을 바탕으로 하고있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띠고있다.

司正협의회가 확정한 의식개혁지침은 모든 공직자와 각계 지도층인사가 먼저 의식개혁을 솔선하고 이를 국민속에 확산시켜 나간다는 실천계획을 담고있는 것이 특징이다.

용어에 있어서도 「국민의식개혁」대신 「의식개혁」이란 말을 사용한것은 「국민의식개혁」이란 용어를 사용할 경우 지도층에 대한 의식개혁의 先行없이 국민에게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라고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公職者와 각계 지도층인사의 의식개혁을 우선하고 있는 司正당국은 특히 공직자에 대해서는 物理的 조치를 포함해 강압적으로라도 이를 실천해 나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80년대를 맞아 의식개혁이 어느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식속에 內在된 否定의식殘滓에대한 근원적 제거없이는 제2跳躍을 위한 先進化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全대통령이 지난 1·22國政연설에서 부패, 인플레, 無秩序심리등 3大否定심리의 추방을 의식개혁의 차원에서 강조한 것도 바로 이런 연유에서라고 볼수있다.

해방이후의 혼란기, 60~70년대 物量위주의 팽창시대를 겪으면서 국민의식속에는 先進化에 저해가되는 歪曲된 의식구조가 뿌리박히게됐다고 볼수있다.

예를들어 李朝시대의 官尊民卑、事大의식、日帝시대에서 비롯된 왜곡된 저항의식、해방후 혼란기의 無秩序속에서 형성된 利己주의와 퇴폐풍조、70년대 고도성장시대에 만연된 權力型부패와 黃金만능사조、또 이에 따른 계층간 不信풍조등이 지적될수 있다.

이러한 뿌리깊은 왜곡된 의식구조의 개혁없이는 지속적인 국가발전과 先進化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며, 따라서 여기에 의식개혁의 必然性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 自律化와 국제화、고도산업화시대로 특징 지어질수 있는 80년대의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그리고 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1등국민으로 성숙하기위해서도 先進化를 향한 의식개혁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는 當爲性 마저 안고있다.

正義사회의 구현을 國政指標의하나로 삼아온 제5공화국정부가 과거의 고질적인 非理와 폐습, 부정부패를 뿌리뽑고 불합리한 각종 제도와 환경을 개선, 부정과 非理의 근원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어느때보다도 강력히 기울여온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눈에 보이는 부정과 非理는 일단 개선됐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노력은 物理的인 힘에의해 부정과 非理를 일단 억지시키는데 그쳐 아직도 잠복상태에 있다는 것이 司正당국의 분석이다.

◇意識改革9大實踐要綱

①모든 생활은 정직에 원칙을 두고 새시대의 올바른 價値觀을 정립하여 不信풍조를 과감히 추방한다. (양심적인 개인, 깨끗한 정부, 도덕적인 사회)

②모든 생활의 기초를 질서에 두고 이를 體質化하기위해 국민적 역량을 최대한 경주한다. (건전한생활질서, 조화로운 공공질서)

③歪曲된 美風良俗의 본질을 되찾아 민족정기와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킨다. (자신에는엄격, 가정에는 家風, 사회에는 예절)

④모든 公職者는 청렴의무를 준수하고 무사안일등 痼疾的폐습에서 탈피, 스스로 철저히 책임지는 公職풍토를 확립한다. (上司에는존경을, 책임은내가, 功과褒賞은 部下에게)

⑤각자가 자기본분에 충실하고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남의일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 止揚)

⑥생활주변의 痼疾化된 각종 낭비요소를 제거하여 분수에맞는 생활자세를 정립한다. (허례·허식·사치풍조 배격, 시간·물자·노력낭비제거)

⑦민주시민으로서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회의 不正·非理와 무질서에 대한 건전한 고발정신을 함양한다. (무관심 止揚, 참여의식 提高, 依他心 배제, 자주정신 培養)

⑧지나친 利己主義와 뿌리깊은派閥, 연고의식을 철저히불식함으로써 국민화합의기반을 확충한다. (地緣, 學緣, 血緣등 分裂葛藤요인 해소)

⑨모든 교육은 가정교육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 여성의 적극적 참여와 역할을 提高한다.

「제2도약」위해 政府아닌 民族的차원서 推進

司正협의회는 이번의 의식개혁의 기본방향을 正直·秩序·創造의 새로운 價値觀을 정립하는 정신개혁운동으로 발전시킨다는 한편 政權的차원이 아닌 민족·국민화합의 차원에서 기필코 달성한다는 역사적 과업으로 승화시킨다는데 두고있다.

이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올해를 기반확립의 해로, 내년부터 85년까지를 의식개혁의 발전·定着期로 잡고 구체적으로 83년을 의식개혁의 活性化의 해, 84년을 개혁된 의식을 생활화하는 해로 설정, 86년 아시안게임에 앞서 모든 국민들이 先進의식을 갖도록 한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또 일상생활속에 體質化되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적으로 강력히 추진한다는 全대통령의 기본지침시달에 따라 공무원연수원등 전국 3백88개의 각종연수기관, 여성단체, YMCA, 라이온스클럽등 모든 사회단체, 동창모임 契모임등 각종 모임등을통해 의식개혁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그런 과정에서 과거와같이 정부가 하라는대로 한 사람만 결국 손해본다는 對정부 不信을 없애고 의식개혁에 관한 사항을 바르게 실천하면 그만큼 혜택을 볼수 있는 사회환경과 여건을 조성한다는데 특히 역점을 두고 있다.

9大실천요강을 통해 司正당국은 정직·질서·창조의 새로운 가치관 확립과함께 직업윤리관을 정립토록하고 가정과 사회, 단체등의 모든 분야에서 낭비요소를 없애 건전한 국민생활자세를 확립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의식개혁운동에 관해 司正관계자는 최근 일부에서는 과거의 예에비추어 일시적인 정치구호로 誤認하는 경향도 없지않으나 의식개혁의 어려운 벽을 뚫지않고는 제5공화국의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각오아래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의식개혁은 국민이 과연 얼마만큼 스스로를 깨우치고 참여하느냐에 따라 成敗가 달려있다고 볼수있다. 그러기위해서는 정부도 外形的인 구호나 形式보다 內實있는 개혁으로 이 의식운동을 이끌어 가야할 것이다.

【尹國炳기자】

아침에

이봄에 마음의 解氷을

잔인한 계절…「죽음과 復活」을 생각해본다

끝내 地下鐵사고

지하철 공사장이 무너져 내렸다. 승객 수십명을 태운 퇴근길의 버스가 지하22m 깊이로 추락, 10여명의 사상자를 내는 참극을 빚었다.

보도를 들으면서 그러면 그렇지 드디어 올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어쩌다 차를 타고 지하철공사장을 지날때면 나는 가슴이 콩알만해지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다. 얄따란 철판위를 육중한 버스들이 몇대씩 줄지어 붐비는광경을 목격하면서 불현듯 그 철판을 받치는 받침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지나 않을까 하는 조바심에 아슬아슬해진 때문이다.

저 짐채같은 버스들을 어떻게 다른길로 좀 돌릴 수는 없을까. 이 좁은 서울 도심에 굳이 지하철을 파야만하는가, 그만한 경비로 새서울을 몇개쯤 만들어 교통을 분산시킴이 어떨까, 답답하니 실없은 생각까지 하기도 했다.

지금 내가 사는 마을에도 지하철 공사가 한창이다. 어느날 공사가 준공되고 내가 그 지하철을 타고 들락거리는 즐거운 기대로 부풀기도 하지만 이따금 지축을 울리며 터지는 발파소리에 나는 알면서도 매번 까무라치도록 놀라곤 한다. 우르르 솟아져내릴 것같은 가옥의 진동소리, 그때마다 혹시나 벽에 금이라도 가지 않았을까 근심스러워 살펴보게 된다.

언제나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이렇게 일 저지르고서야 비로소 이런저런 미비한 공법이며 안전책이 뒤늦게 진단되는 씁쓸함을 매번 경험하지 않을수는 없을까.

참으로 왜 안되는 것일까. 왜 일 저지르기전에 만반의 안전관리가 안되는 것일까.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소홀하고 건성거리게 하는 것일까. 그렇게 무모하고 무리한 강행을 일삼게 만드는것일까.

도시 한 복판의 지하철 공사란 그곳을 통과하는 차량의 하중이며 수십만시민의 안전을 쥐고 있는 어떤 공사보다도 위험부담이 높은 공사임을 십분 알고 있었으련만 당연히 그에 응분한 대책, 완전한 안전책이 마련되었어야 했으련만, 모를일이다. 어쩌다 이런 대형참사를 빚어냈는지 참으로 모를 일이다. 위험한 토사암반지층에 겹하여 해빙기, 결국 봄이 유죄인가, 봄의 교묘한 손놀림이 자연과 사람의 마음을 잠시 마약처럼 풀어 해이시켰던 것일까. 조급하고 무모하고 욕심스럽고 황당하게 만들었던 것일까. 치밀하고 철저했어야할 관계자들을 어이없는 환상가로 만들었던 것일까.

생각하면 이 봄엔 대형사건도 가지가지다. 백주 도심 한 복판 대은행에 단신 폭약을 들고 뛰어들어 참사를 빚었던 H은행사건,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이며 그에 따른 사제들이 때도 사순절인 고난주간에 줄지어 속죄양이 되어 사직에 연행되고 구속된 일, 연이어 또 지하철 공사장 붕괴사건, 서구의 시인이 노래했듯이 진실로 봄은 잔인한 계절인가보다.

균형·無秩序 공존

꽃은 시새우듯 피건만 바람은 아직 차다. 햇살은 가나안땅처럼 따뜻하나 그늘은 유형지처럼 음산하고 춥다. 밝고 화려한 색의 봄옷과 칙칙하고 두꺼운 겨울 코트가 함께 걸어가는 거리, 파랗게 물이 든 가로수와 아직도 잿빛 어둠에 싸인 나무가 서로 등을 대고 반목하는 계절.

봄은 아무래도 완전한 질서와 균형에 이르기 전의 무질서와 부조화가 교차하는 고통스런 계절인가보다. 골짜기의 눈과 양지쪽의 꽃이 공존하고 죽음과 생명이 함께 존재하는 시절,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서서히 새 역사를 창조하는 반역과 모반의 계절, 하여 그 많은 사건들이 주야로 돌발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椿事」란 한자말을 생각해본다. 椿은 대추나무춘, 참죽나무 춘으로 옥편에 나와 있지만 그보다 椿이란 한자의 구성이 재미있다. 봄 춘에 나무목이 합쳐져 갑자기 일어난 돌발사, 불행한 사건을 뜻하는 글자가 된다. 설마 모든 불행한 돌발사가 봄에만 발생하랴만 글자가 뜻하는 의미가 아무래도 심상하다.

사실 수천수만 그루의 봄나무들이 일제히 눈을트고 싸우듯, 아우성치듯 불길처럼 뿜어내는 그 사나운 생명의 표현이란 그대로 치열하고도 비장한 춘사가 아닐수없다.

설사 모든병균이 봄에 창궐하고 오랜 병상의 환자가 회춘해야할 봄에 오히려 악화되고 겨울동안 주춤하던 범죄가 봄과 더불어 활발해지고 잠자던 인간의욕망이 봄볕속에 불붙는다해도 그래서 모든 악이 이봄에 창궐한다해도 그것이 미 악을 능가할만한 선, 새로운빛이 예비되어 있음을 증거할뿐이다.

바람은 꽃봉오리로, 어둠은 새빛을, 죽음은 새 생명, 부활을위한 밑거름으로 바쳐질것이다. 「모든것이 새로 시작되기위해 모든것이 죽고 모든것이 새로 태어나기 위해 모든것이 죽는다」는 누군가의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그사실을 입증하고있는것이다.

현자 소크라테스가 막연히 느끼고 기대했던 그것이 믿을 수 없이 아름다운 그것이 사실이 되어 찾아온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의 죽음에 의해 우리들의 죽음을 멸망시키고 그의 부활에 의해 우리들의 생명을 다시 찾은 부활의 신비」

나아닌 남을 위해

오늘은 그 부활절 주일이다. 오래 잠겼던 문하나가 육중하게 열리는 듯한 아침, 온 세상이 문득 새롭게 단장하고 첫 개점을 한 백화점처럼 눈부셔 보이기도 한다. 가장 좋은꽃으로 가장 아름답게 꾸며진 제대, 일렁이는 촛불도 유난히 밝아 먼 저승까지도 비쳐 낼것만 같다.

이 아침 나는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묻는다.

『너는 진실로 부활을 믿는가』

꼿꼿한 이성의 바늘과 회의의 촉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제일 여린 감성이 나가 대답한다.

『내가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왜라는 이유는 없다. 다만 그리스도가 만일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기독교는 생겨나지 않았을것이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었을 터이니까.

洪允淑 〈詩人〉

꽃은 무심히 피고 아름답게 진다. 꽃이 진자리엔 푸른잎이 돋아나고 열매를 맺는다. 그리하여 한 계절은 머물지 않고 다음계절로 이양해간다. 머물지않고 다음으로 이양해 주는 일은 나를 위함이 아닌 너를 위한, 모두를 위한 죽음의 길이다. 그것이 자연의 질서이며 인간이 배워야할 지혜다.

국가나 사회가 위기에 직면했을때 필요한것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의 의로움이 사람들의 희망이 되기때문이다. 처칠은 전시중 그의 국민에게 「나는 승리를 약속한다」는 말대신 「고통과·희생을 약속한다」고 말했었다. 바로 그것이다. 누구든 승리를 약속한다는 말은 쉽게할수있다. 그러나 고통과 희생을 약속한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고통과 희생은 그대로 나를 없애고 죽이는 길이기 때문이다.

희망을 주는 고통

진실로 나를 없애고 죽이는 이 앞에서만 그러한 義 앞에서만 우리는 진실과 위안을 발견하며 희망과 믿음을 갖게된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박혀 죽지 않았던들 그가 오늘 우리의 희망과 믿음이 될수는 없었을것이다.

이솝의 우화였던가, 해와 바람이 자기의 능력과 지혜를 다하여 지상의 사람의 옷을 벗기는 이야기가 있다. 바람은 있는힘을 다하여 강풍을 불어 사람의 옷을 벗기려 했지만 사람은 점점 굳게 옷자락을 여며 끝내 벗지않았다. 그러나 해는 부드럽고 따뜻한 빛을 내리쬠으로써 마침내 지상의 사람은 단단히 여몄던 옷을 벗어버렸다.

무엇이 얼어붙었던 대지를 녹이고 저 단단하게 굳은 가지들을 여린 풀솜처럼 부드럽게 갈라 놓는가. 무엇이 아름답고 황홀한 꽃송이들을 가지마다 등불처럼 달아 놓는가.

그리고 무엇이 첩첩으로 잠긴 인간의 마음을 시냇물처럼 풀어 놓을수있는가.

길잃은 한 마리 양도 저버릴 수 없는 목자의 사랑, 어버이의 눈물, 고통과 희생을 약속하는 외로운 사람의 진실만이 우리들 얼어붙은 가슴을 열어줄것이다.

이 봄이 그러한 마음의 해빙으로 꽃필 수는 없을까.

메아리

뜨거운 冷靜

엘살바도르事態가 악화되고 있는 理由중의 하나가 쿠바, 니카라과등이 엘살바도르의 左翼게릴라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임은 다 아는 일이다. 이 니카라과가 요즘 「革命輸出」에 다소 주춤해 졌다는 것이다.

그렇게된데는 물론 美國이 직접, 간접으로 니카라과에 「매」와 「홍당무」를 번갈아 내미는데 아찔해 졌다는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도 니카라과내의 민간기업들과 국내 온건파의 소리를 대변하는 중립계 신문이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政權에 제동을 걸고 있기때문이라는 까닭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신문은 니카라과의 批判紙로통하는 「라·프렌사」.

라·프렌사는 그의 「투쟁」으로해서 81년 한해만도 산디니스타 政府에의해 다섯번 發行停止처분을 당하였다. 때로는 산디니스트派의 폭력단에 신문사가 습격되기도 했다. 그 대신 신문부수는 늘어나 2년전 5만부를 내던것이 지금은 7만5천부가 나간다. 니카라과에서는 自由言論의 우상이되었다. 총취재진 19명의 오붓한 신문사. 그러나 이 신문의 소리는 전니카라과에 메아리진다. 신문1면에 이신문 社主의 유언이 모토로 실려 있다. 『신문의 自由없이 참된自由없다』고.

이 신문의 社主 차모로씨는 소모사政權을 비판하다가 암살당했다. 현 편집국장 호아킨·차모로씨는 암살된 社主의 장남, 올해 서른살이다. 이 차모로2세는 말한다-『산디니스타와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르다. 그는 분명히 마르크스·레닌主義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는 니카라과가 여전히 民主主義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다. 西歐型의-』 그는 이 민주주의를 되찾기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것이다. 오는 5월 그는 국제신문 發行人協會(FIEJ)가 주는 금년도의 「자유를 위한 골든·펜」賞을 받을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 自由黨 말기때 新聞의날표어로 「言論의 自由」를 내건 일이있었다. 올해의표어 「品格과信義」에 빗대어본다면 우리신문도 짧지않은세월에 허다한 풍상을겪고 귀한경륜을 쌓았구나하고 回憶된다. 그리고 이젠 많이도 차분해졌다고느낀다.

지금의 우리 신문인이 지닐 긍도와 관련해 한국일보의 故張基榮社主가 한 말이 생각난다.

『납이 녹아서 活字가 되려면 6백도의 열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활자화되는 記事는 6백도의 냉정을 가지고 써야한다. 「뜨거운 冷靜」…, 이 兩極을 쥐고 나가는것이 新聞이다』

외信로비

바웬사、軟禁후 婦女와 첫對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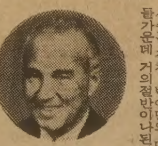
運動부족으로 살쪄

○…폴란드 自由勞組지도자 레흐·바웬사는 요즘 뚱뚱하게 살이 쪘다. 당분이많은 식사와 운동부족 때문이라다. 저항의 상징처럼 길렀던 코밑 수염도 무성하게 자란 턱수염에 묻혀버렸다. 자유를 되찾을 때 까지 깎지 않을 결심이라고 한다. 바웬사가 야루젤스키軍政에의해 연금된지도 벌써 4개월. 바르샤바교외에 별도로 마련된 면회장소에서 바웬사는 최근 연금중에 태어난 그의 일곱번째 아기 마리아·빅토리아양과 처음으로 상면했다. 얼굴생김새가 바웬사를 꼭 닮은 빅토리아가 아버지를대신해 투쟁의 상징이된것이다. 사진은 최근 부녀상면 때 다누타여사가 찍은 것으로 연금중의 바웬사사진이 서방측에 전해진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바르샤바 교외의 연금장소에서 생후 2개월의 딸 빅토리아와 첫 상면하고있는 바웬사. 【外誌】

멜콤툰、레이건非難

○…「정치大使들이 판치는 바람에 미국외교가 크게 상처를 입고있다는 혹평이 나왔다. 체코 이스라엘 유고 소련등에서 일하기에 까다로운 나라 주재대사를 지낸 멜콤·툰씨는 레이건이 선거때 유공자들에게 무더기로 대사직을 맡긴 사실을 꼬집고 나선것. 툰씨가 「덜컹거리는 고물차」라고 비유한 이들정치대사수는 전체1백여명의 대사들가운데 거의절반이나된다.



◇멜콤·툰

레이건의 친구로 인준과정때부터 말썽이 있던 배우출신의 멕시코주재 존·개빈대사와 연방준비은행총재를 지낸 서독주재 아더·번즈대사등이 우선 그런사람들로 툰씨는 꼽았다.

"정치大使판쳐 美외교 망친다"

"英서 아르헨勞動者 강제추방"

中共 陳慕華 바쁜日課에진땀

本社에 長文의서한

○…리카르도·H·비델라 駐韓아르헨티나 대리대사는 9일 포클랜드사태에관한 아르헨티나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장문의 서한을 한국일보사에 보내왔다.

비델라대리대사는 이 서한에서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군도를 점령하게된것은 포클랜드군도에서 작업중인 아르헨티나노동자 42명을 영국측이 아무 이유없이 강제 추방하려했기 때문이라고밝혔다. 이들노동자들은 자기네 회사가 영국인으로부터 사들인 고래처리공장의 해체 작업을 하기위해 지난3월18일 산·페드로섬에 도착 했다는것. 따라서 아르헨티나는 노동자의 보호와 主權수호를 위해 힘으로 대응할수밖에 없었다고 이서한은 밝혔다.

매일 외국손님接見

○…지난달 대규모 행정개혁을 단행한 중공에서 신설 對外經濟무역부장직에 임명된 陳慕華는 요즘 눈코뜰새없이 바쁜 일과를 보내고있다는 얘기. 여성으로서 의외로 중책을 맡은 陳은 대외경제원조、대외무역、차관도입등 소관업무외에 매일같이 외국손님들을 접견하느라 저녁7시에 방영되는 TV뉴스시간에 陳의 모습이 나타나지않는날은 하루도 없을정도라는것.

재미있는 주간여성
식품점서 판매중

캐나다사회를 아는 지름길
사업의 번영을 원하시는 분,
자녀교육, 이민문제, 고국소식등에 관심
가지신 분 ——

"한 국 일 보"

(THE KOREA TIMES TORONTO) 를
잊지 마십시요.

주6일 발행(금·토요일자는 합본)
구독료(선금) : 월 $9, 6개월 $50, 연 $99
(크레딧·카드 넘버만 주셔도 됨)

전 화 : (416)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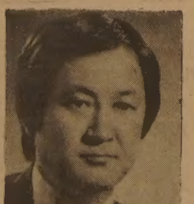
보내실곳 :
The Korea Times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한국일보

구독 신청서

이름 ....
주소 .... APT. ....
도시 .... 주 ....
우편번호 ☐☐☐☐☐☐ 전화 ....
크레딧·카드 넘버 : VISA .... 매스터·카드 ....

이대환 不動産



주택, 건물, 프라자, 아파트 등이나 사업체를 사시거나 파실때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신용과 친절로 봉사하는 이대환 부동산회사에 맡겨 주십시오.

*버라이어티 스토어

①주매상 $7,000이상 건물(1베드룸)포함 D.P. $120,000 아스킹 $210,000
②주매상 $10,000이상 아스킹 $130,000 리스 : 4+5 옵숀10년
③주매상 $8,000 아스킹 $109,000 리스 : 9+5옵숀
④주매상 $6,500 아스킹 $65,000 렌트 $500(Mon) 리스 : 11½년 20마일. 시외

*도나스 샵
주매상 $9,200 렌트 $3,500 리스 : 3+5+5+5 아스킹 $310,000 다운페이 $150,000

*햄버거 샵 *드라이 크리닝 *커피 샵등 여러가지 비지네스가 있음

D LEE REAL ESTATE LTD
609 BLOOR ST. W B)535－1251 R)536－4250

생각해보는「熱氣」의 眞相 外形과 內實의 사이…復活節에

한국일보 **특집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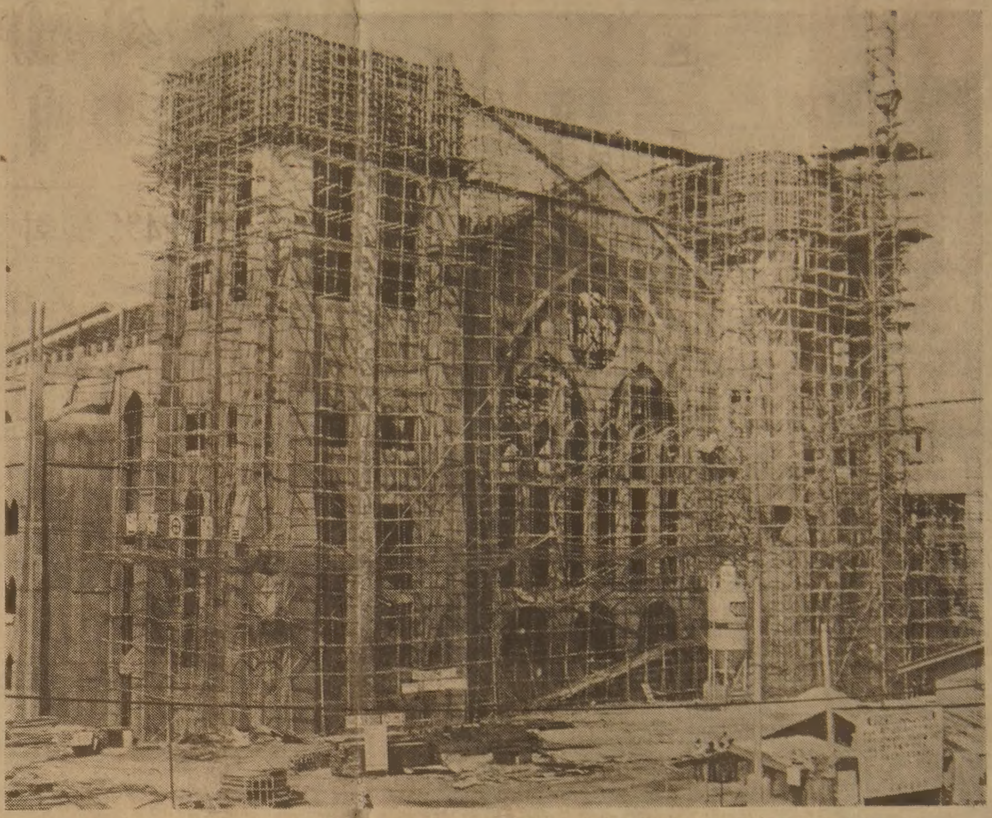
取材팀
◇文化部 張明秀 차장, 李忠雨 〃, 梁平 기자, 禹桂淑 〃, 李亨基 〃
◇寫眞部 金海雲 차장, 崔東完 기자, 李基龍 〃, 張啓文 〃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한국基督敎는 지금…

「敎會區」별명의 서울江南「基督敎붐·타운」을 보면

요즘 여자 둘이 모이면 반드시 기독교얘기가 나오고 남자 셋이 모여도 기독교에관한 얘기가 빠지지 않는다。서울의 주택가 어느곳을 향해 사진을 찍어도 십자가가 거의 어김없이 잡힌다。주택가의 나지막한 언덕에 올라가 교회지붕에달린 십자가를 50개까지 세었다는사람도 있다。11일은 기독교신앙의 핵심을 이루고있는 부활주일。서울여의도광장과 明洞성당을비롯、전국 곳곳의교회에서 예수님의부활하신뜻을 되새기는 기독교인들의 미사와 예배가 이날 하루종일 올려진다。이 뜻깊은 부활주일을 계기로 한국의 기독교가 왜 이토록 폭발적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肥大化에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교회열풍지대 현장취재와 관계자들의 분석을통해 진단해본다。



◇「敎會區」라는 별명이 붙은 서울江南區에 우리나라에서 가장큰 성전으로 신축되고있는 忠峴교회。총공사비가 1백20억원에 총건평이 1만여평에 이르고있는것으로 알려져있는 이교회는 한국기독교 급성장의 전형적인 상징으로 꼽히고있다。

신도20萬의 大교회…세계기록 한商街에 10개·한건물 7개도

大型化 경향…建坪 1만평에 120억원짜리 聖殿이

작년10월 천주교 교구설정기념 신앙대회가 열리던 汝矣島상공에서 십자가형태가 나타났다。

이때 많은 신자들이 동편하늘의 구름을 헤치고 은빛으로 갈라져나온 십자가의 모습을 똑똑히 목격하고 환희의 박수를 보내는가하면 너무 두려워 벌벌 떨었다는 사람까지 있었다。

이런 현상에대해 金昌錫神父(驛村洞성당주임)는 십자가는 본래 짊어져야하는 짐을상징한것이기때문에 너무나 들뜰 필요가없다고 강론한바있다。

하늘에 십자가가 나타난 汝矣島는 세계기독교사상 유례를 찾기힘들 정도로 폭발적인 한국기독교 열풍을 대변하는 명소가 돼있다。

여의도광장에서는 바로오늘도 개신교교단들의 부활절연합예배가 어김없이 열려 기독교인들의 뜨거운 신앙열도를 보여주게 된다。

1950년대 백만미만이던 기독교인구가 1천만을 육박할만큼 양적 급성장을 했다。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朱在鏞교수(韓神大)등 대부분 학자들은 여의도의 대중전도집회등 70년대들어 쉴사이없이 열린 부흥회를통한 성령운동의힘이 크다는 점을 가장큰 이유로들었다。

빌리·그레이엄대회(72년)를 출발로 엑스플로74 민족복음화대성회 (77년) 80세계복음화대성회로 이어질때마다「성령의은사」와「민족의회개」가 강조되면서 결신자가급증했기때문이다。

현재 서울에는 전체기독교인의 34%가,교회의 22%가 집중돼 있지만 서울안에서도 한강남쪽에 특히 교회가 많이 몰려 있다。여의도 잠실까지의 江南지역에서 고급아파트의 신축붐과 발맞추어 교회건물들이 잇달아 들어서서 마치 기독교타운의 인상을 풍기고 있는것이다。

성령운동을통해 짧은시일안에 단일교회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20만명의 신도를가진 순복음중앙교회가 자리잡고있는 여의도는 대집회가 안열린 주일일때라도 항상 신앙인파로 흘러넘친다。

요한3서2절 말씀에 근거 ①우리의영혼이 잘되고 ②육신도 건강해지고 ③범사가 형통한다는 삼박자구원의 순복음메세지를 내세우며 趙鏞基목사가 끌고있는 이교회는 성전기념관 외에도 13층짜리 세계선교센터、10층의 교육관등 매머드건물을 가지고 있다。방마다 칸마다 비디오시설을갖추고 하루 6부예배로도 부족하자 한꺼번에 신자2만을 수용할수있는 성전확장공사를 서두르고있다。

汝矣島에서 한강남쪽으로 그리멀지 않은 永登浦區新吉3洞에 逐邪治病으로 교세를넓힌 대표적교회인 침례회 성락교회가 위치해있다。대형 교회에서 흔히 볼수있듯이 신자들을 실어나르는 버스4대가 보이며 주보사이에 끼어있는 헌금봉투가 눈에띈다。

총력주일인 4일자 주보에는「성전건축헌금을 위해 기도합시다。주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여 우리도 피와 땀흘려 믿음을 건축합시다」고 적혀있다。이어 1억원하실분을 기다립니다 에서부터 50만원하실분을 기다립니다까지 6단계를적어놓고 그러나 여기에 구애받지말고 모두모두 힘껏 참여합시다라고 써어있다。

그다음에 건축헌금 작정현황에가서는 가장 적은 액수가 50만원이고 최고 1천만원까지 헌금자이름과함께나열돼있는데 단하루에 9명의 신자가 작정했다는 금액이 무려 3천4백만원에 달했다。

교회건물이 있는데도 건축헌금을 거두는 이유는 뒤편으로 설립당시의 초라한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이를헐고 건물을 이어내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들교회건물의 건립붐은 강남지역 어디에서나 쉽게 눈에 띄어,江南區는「敎會區」라느니 한국의 신생예루살렘이라는 말을 듣고있다。

강남지역의 큼직한 교회건물로 강남교회의 光林교회(新沙洞)、성결회관(三成洞)이 79년말에 완공됐고 忠峴교회 예장합동회관 독립문성결교회등이 현재 신축중에 있다。

예장합동측의 총회회관은 三成洞山36의4에 지상10층 지하2층 규모로 작년 9월기공예배를 가졌는데 공사비는 20억원가량。같은 예장합동측인 忠峴교회(담임 金昌仁목사)는 현재의 忠武路 건물로는 늘어나는 교인을 다 수용할수 없자 論峴洞7의227에 교회를 신축하고있다。신축중인 이교회는 5천7백여평의 대지위에 본당 교육관 두동을 나란히 5층높이로 총건평 1만평넘게 짓고 있는데 이교회가 완공될경우 한국 최대규모의 聖殿이 될것같다。

이 대형건물을 짓는데는 총공사비가 1백20억원가량이 들것으로알려져 있는데 1만명의 신자 한사람이 평균 1백20만원의 건축헌금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독립문성결교회도 弘濟洞山4에 대지를 사들여 작년4월에 기공、올해안에 새성전을 완공할 예정이다。

강남지역에는 대형교회건물 붐과함께 신생주택가에 개척교회 전세교회들이 잇달아 들어서고 있다。특히 아파트촌에서 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大峙洞은마아파트 주변 상가에는 교회들이 빽빽이 들어서 은마상가에 10개,선경·삼성 2개상가가 잇달아 있는 건물에는 5개의 교회가 있고 며칠새 2개교회가 입주토록 계약이 돼있다。또 잠실 장미쇼핑센터 B전물의 경우도 7개교회가 입주해있다。

한국인들의 이같은 뜨거운 기독교열풍은 이스라엘백성을 구원한 출애굽의 하느님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그리스도가 지배자를 위해서 온것이 아니고 가난하고 소외된자들의 인권회복과 해방을 위해서 오셨다는 사상이 우리민족에게 강하게 와닿기때문이라는게 柳東植교수(延世大)의 설명이다。

또하나 기독교열풍이 일고있는 성령운동의 힘에서 찾아야하며 말세의식의 팽배도 그요인이 되고있다고 많은학자들은 분석하고있다。

한국의 모든 종교가 전통적인 무속신앙에서 나오는 영의 개념에 영향을 받고있는데 특히 기독교의경우 성령이 민족과 인간을 구원하는 복음운동과 일치,폭발요인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柳교수는『성령이란 지금 우리속에 있게하신 하느님을 뜻하므로 지금 하느님과 사귐을 갖는 성령의 役事에동참하자』고 역설한다。

그것은 곧 하느님이 이세상에서 자유와 평화,사랑과 정의가 실현되는인간사회를 형성하는 일이므로 오늘의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여 사회의 소금과 빛과 누룩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뜨거운 한국인들의 기독교열풍은친교를 통해 생동하고 봉사속에서 실증되며 전사회적인 구원임이 선포돼있는 하느님의 본래 의미를 어떻게 짊어지느냐에 달려있다。십자가는 무겁게 짊어지지 않고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李忠雨기자】

겸허하게 귀기울이는 敎會로

詩人목사의 기도

金京洙 〈牧師 昌峴교회〉

「많은敎會」보다는「참된敎會」일때 祝福이 天使일순 없어도 최소한 常識은 지켜야 건물이 작다고 제구실못하는것 아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명절의 하나인 부활주일이다。예수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교의 시작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의 영광만을 차지하려는 생각은 참된 의미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태도는 아니다。예수는 형식에 얽매인 율법주의적인종교、위선에 가득찼던 바리새적인 종교인을 몹시 싫어했다。

예수는 그들을 회칠한 무덤、심지어 독사의 종류들이라고 말씀하셨다。부활주일은 그예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절기어야 할 것이다。

성서는 죽음없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바울은 옛자기를 예수의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부활한다고 했다。이와같은 체험없이 예수의 부활이 부활일 수 없다。

바울은 이런말도 했다。『오호라、나는 비참한 사람이다。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고。

한국교회의 신앙적인 태도가 바로 이와같아야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지나간 백년역사를 통하여 우리민족이 기억해 둘만한 많은 일들을 했다。그러나 그것때문에 교회가 자기교만에 빠진다면 교회의 장래는 결코 밝지 못할 것이다。

Protestant(반항자)란 자기가 자기를 개혁하는 교회를 뜻한다。세상에는 완전이란없다。절대라는것도 없다。그렇기때문에 바울은 나는 이 모든것을 이미 얻었다는것도 아니요、또 이미 완전해졌다는것도 아니다。다만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뿐이라고했다。

교회는 과거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이어야한다。

한국에 천주학이 처음 들어 왔을때 무서운 핍박이 뒤따랐다。일제36년도 결코 평탄치 않았다。그러나 한국의 교회는 우리민족과 고락을 같이했다。한국교회가 같이 울며、같이 웃었다。한국교회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것때문에 교회가 교만해져서는 안된다。더우기 교회가 비교회적인 성장에 들떠서는 더욱 아니된다。

한국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다。그러나 그것만으로 기뻐해서는 아니된다。교회가 참된 의미의 교회일때에만 그것이 축복이다。

그러나 교회가 외형적인 발전만을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 교회안에「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면、그것은 이미「하나님의 무덤」임을 알아야한다。

한국 최초의 교회는 우리민족의 소망일 수 있었다。나라없는 설움에 우리 민족이 울때、나라없는 슬픔에 우리의 역사가 잠들었을 때 한국의최초의 교회는 우리 민족의 빛일 수 있었다。

그 빛을 교회는 잃지 말아야한다。

그러나 슬프게도 한국의 교회는 지금 외형적인·물량적인 발전에만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는 듯한 인상이 짙다。그래서는 결코 교회가 산위에 세운 성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예수는 쓸모없는 예루살렘성전을 헐라고 하셨다。그리고 내가 사흘이면 다시 세우겠다고 하셨다。

교회는 첫째 세상의 빛이어야한다。어두어진 역사를 밝히는 빛이어야 한다。그리고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어야 한다。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삶의 맛을 낼수 있어야 그것이 소금일수 있다。그렇지 않으면 땅에 버려져 뭇 사람들의 발에 짓밟힌다고 했다。

둘째 교회는 길이어야한다。누구나 옳게 갈수있는 진리의 문、의의길이어야 한다。

세째 교회는 남의 짐을 져주는 지게꾼이어야 한다。자기 짐만을 지고 가는 사람이 아니고 남의 짐도 져줄 줄 아는 지게꾼이어야한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교회는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

내 교회만、내 교파만 잘 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는듯한 태도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한 건물속에 몇개의 교회가 서로자기교회를 확장하기 위해 으르렁 거리는 것도 꼴불견이고、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인모으는데만 열중하는것도 보기 좋은 교회풍경은 되지못한다。어떻게 한국교회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알수없다。

교회소유권을 놓고 법정투쟁을 벌이는것도 교회답지못한 일이다。하물며 반대파를 몰아내기위해 교회에 철조망을 쳐놓고 두파로 나뉘어 교회안과 밖에서 예배를 드린다면、이는 너무나 창피하다。

교회가 천사일수는 없다。교회가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도 없을것이다。그러나 최소한도의 상식은 벗어나지 말아야 할것이다。

요즘 한국교회에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사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계시록3:1)고 했다。라오디게아교회에 대해서는『나는 사랑하는자일수록 책망도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나는 네게 권한다。…네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네눈이 밝아지려거든 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했다。

한국교회는 한국의 등불이 되기 위해서도『흰옷』을 더럽히지 말아야한다。그리고 앞을 보기 위해서 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한다。『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촛대를 옮기고 말 것이다』(계시록2:7한)。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사데교회에는『자기옷을 더럽히지않은 사람이 몇이있었다』『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그리스도) 함께 다닐것이라고했다。

한국교회가 참빛이되기위해서는 눈먼 교회가 되어서는 아니된다。그리고 더웁지도 차지도않아서도 아니된다。깨어있어야한다。그때에야 비로소 생명의 면류관을 아무도 빼앗지못할 것이다。(계시록3:11한)

교회가 제구실을 못하는것은 교회건물이 작아서가 아니다。사실은 너무 비대해지므로 큰시련을 겪어야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오늘은 교회명절중 가장 큰 명절의 하나인 부활주일이다。무덤속의 예수가 다시 사신것처럼 한국의 교회도새롭게 부활해야한다。계시록은『이기는자는 내가 내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되게 할것이다』(3:12)라고 했다。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기울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 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883-9407
●MARKHAM PLACE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6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목,금,토,일 권순근과 그일행 출연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1618

광고 신청은
한국일보사
●일반광고 : 최성조
●매매구인광고 : 박정욱
533-2361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MASA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977-9519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6주년 기념 세일
◎전자 CASH REGISTER
◎각종 전기전자 계산기
◎각종타자기
◎금고, 책상, 캐비넷
김성수
교포경력(TORONTO 15년 경력)
분납가능

JAGUAR 종합보험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자동차보험.
*비지네스 보험.
*집보험.
*생명, 상해보험, 등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 (Miss. 정)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한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한국일보 (특집판)

한국基督教는 지금

教會도 教人도 하늘의 길을

公開되는 獻金봉투에 무슨뜻있나
「教勢」아닌 「福音」에 宣教중점 둬야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허락되리라는 전제아래 나의경우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 좋을것 같다。나는 어렸을때 독실한 기독교신자이셨던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나가고, 국민학교도 교회 부속학교를 다녀 기독교의 영향을받으며 자랐다。성장하는 중에도 기독교신자로서 살며 그것이한 모티브가 돼「사반의十字架」와 같은 기독교 소설까지썼다。그후 차츰 문학을 공부하면서 佛教에 심취,「等身佛」과같은 나의 대표작으로꼽히는 불교소설을 쓰기도했다。요즈음 나는 기독교신앙을 느끼지는 않으나, 기독교에 대한 공부와 연구는 쉬지않고 하고있다。최근에는 기독교에 관한

非基督教人은 말한다

외국서적을 몇권구해 우리나라의 기독교 현상과 비교연구해 보고있다。그리고 우리나라의 기독교가『비판받기를 싫어해선 않될 몇가지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수 없음을본다。

우선 많은 신자들이 기독교를 본래의「하늘의 길」에서「땅의 길」로 뒤집어놓아 자기구원, 영혼의 해결과는 관계없이『그것을 믿으면 사업이 잘된다』『누구의 병이 나았다더라』는 식의 현실적인 利得에 신앙의 목적을 찾고 福田(복밭)의 의미에서 믿음의 출발을두는것 같다。이렇게 현실적인 福을 받기위해 몰려가는것은 순수한 신앙 심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뭏든 이 福田에 의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종교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싶다。그렇다고 기독교 지도자들은 선교의 방법으로『믿으면 재물이 늘어난다』『병이 낫는다』는 현혹적인 이야기를 결코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일반적으로『교회가 신자의 헌금으로「치부」한다』는 말이 자주 나돌고 있다。신앙에서「치부」라는 나쁜 뉘앙스가 섞인 단어가 쓰일 수 있다는 데 나는 개인적인 안타까움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헌금자체는 좋은 것이며, 하나님에게 순수한 마음을 바치는 하나의 물질적인 표현이다。그러나 교회 담당자들이 헌금에 집착하고, 큰 헌금에 머리를 수그리고 그 돈으로 교회를 높게 하고,교회를 넓게 하는 데 급급해 있다면 그것은 헌금의 참뜻을 망각한, 반성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본래「십일조」라는 것은 모세시대의 율법으로 당시 박과 가난에 시달리던 유대인을 돕기위해 부자에게서 많은 돈을 받아 구휼사업에 쓰던 헌금제도였다。

이 헌금이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구휼이 아니라 교회를 높이고 넓히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가난한자의 동전한닢이 부자의 백만금에 비해 더 낫다는 헌금의 진정한 의미도 잊혀진채 부자의 헌금이 교회의 자랑거리로 크게 칭찬되고 있음을 보지 않을 수가 없다。

헌금자는 헌금봉투에 자기이름를 써 넣지 않아야하고, 교회담당자는 헌금자의 이름과 액수를 공개하지 않아야한다。헌금에 자기이름을 적어넣어 칭찬받는 헌금자는『하늘에서 받을 상을 그것으로 다 받아버려 다시 받을상이 없을것』이다。

헌금자의 이름과 액수를적지않으면 헌금 총액수에「부정」이 있을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헌금집행위원회가 조직돼서 관리해나가면 그런 걱정도 없어지리라고 생각한다。

나는 또 이런생각도 한다。부자들이 교회에서 이름을크게 높이며 헌금하는것보다 바로 옆에있는 가난한사람, 괴로운사람의 옆구리에 누구도 모르게 살며시 찔러넣어주는 것이 얼마나 더 아름다운 헌금일까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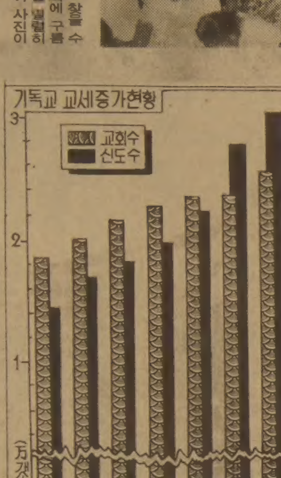
모든 종교는 선교활동을한다。그중에서도『코란 아니면 검을 받으라』는 전투적인 마호멧교가 가장 적극적이지만, 기독교도 적극적인 편에 속한다。이선교는「복음전파」란 사명감을 가지고 이루어지는것이면 아무리 적극적이어도 좋은것이다。

만일 이 선교활동이「교세확장」이라는 저의가 끼어있으면 그 적극적인 선교는 지양돼야 한다。

그리고 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한 가지 있다。그것은 일부의 젊은 신학도들 사이에서 있기 쉬운 이른바「해방신학」「정치신학」이다。이 것은 내용적인 것은「人間主義 神學」이나 학술적으로는 변증법적인 신학으로 우리의 특수한 정치·사회 상황에서는 자칫 그릇된 방향으로 신앙을 이끄는 경가 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金東里
<예술원장·小說家>

◇한국의 기독교는 다른 나라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만큼 급성장했다。여의도 대중전도집회에 구름처럼 모여들어 성령의 은사와 민족의 회개를 열렬히 기구하고있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찍은 이 사진이 그 좋은증거다。



解放당시 50만教人이 지금은 9백 7만여명
全 人口의 24%、교회 2만6천 6백개소

교인34%가 서울에
1백23 宣教團體서 사회봉사
외국인 1천3백명 常駐활동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하루가 다르게 부쩍부쩍 늘어나고 있다。문공부가 집계한 81년말 기독교세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기독교인수는 모두 9백7만6천명(개신교 7백63만7천명, 천주교 1백43만9천명)으로 전체인구의 24%를 차지하고 있다。또 교회수는 2만6천6백75개소(천주교 2천3백53, 개신교 2만3천3백20개소)로 도시는 말할것도없고 웬만한 산간벽지에까지 없는곳이 없으며, 기독교인의 34%가 서울에 집중돼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방당시 한국기독교인수는 개신교30만명, 천주교19만명을 합쳐 50만명이채 못되었으며 60년대초까지만해도 1백만명을 넘지못했다。서서히 늘던 기독교인수가 양적 급성장을하기 시작한것은 70년대 들어서면서부터였다。

문공부가 교세현황을 집계하기 시작한 75년말의 경우 개신교교회수는 1만6천89개, 교인수는 4백1만9천명이었고 천주교교회수는 2천2백65개, 교인수는 1백1만2천명이었다。

80년들어서는 기독교교세가 부쩍늘어나 개신교는 교회수가 2만1천2백43개、교인수는 7백63만7천명으로 전체인구의 23·5%에 이르렀고 천주교는 교회수가 2천3백42개,교인수는 1백32만1천명으로 전체인구의 4·3%를 차지했다。

81년말 집계결과 개신교는 전년에 비해 6·9%, 천주교는 11·4%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기독교인들의 서울집중이 두드러져 개신교인 50만명가량이 서울에살고있음(34%)이 밝혀졌다。

또한 개신교는 69개교단으로 갈라져 3만3천2백명의 교직자가 있는데 비해 천주교는 로마교황청 정상 14개교구로 나누어져 있긴하나 교단은 단일교로서 4천7백90명의 교직자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개신교단의 교파별 교세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오순절교순이고 69개교단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이름아래 32개교파로 나눠져 있다。

장로교는 기장과예장 통합 예장합동으로 크게 분열되고 예장합동은 주류비주류로 갈라진다음 비주류는 다시 개혁 예神 보수측등으로 세분돼있다。

개신교들이 각 교단으로 분열이 심한대신 90개의법인단체들이 의료 교육 사회사업등 각분야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펴고있다。문공부에 등록된 종교계의 법인단체는 2백6개에 달하는데 이중 90개단체를 개신교가 차지하고있고 그다음이 천주교 33개이다。

개신교가 이땅에 들어와 근대화과정에서 의료사업 YMCA YWCA와같은 청년운동 여성해방운동 한글성서에 의한 한글보급등에 커다란 역할을 했던것은 다아는 역사적 사실이다。

기독교가 여자교육을 시작한 것 하나만으로도 한국인들의 영원한 감사를 받기에 족하다는 尹致昊씨의 말을 빌지않더라도 그 공로를 충분히 알만하다。

특히 기독교 선교단체들이 많은 고아원과 양로원 운영을 통해 우애와 박애정신을 심어주고있는 점도 간과할수 없다。

이들 기독교단체들의 최근들어 괄목할 사업으로는 교도소 수감자 비행소년 불우여성들에대한 선도교화가 두드러져있다。물론 복음선교를 위한 활동이긴 하나 사랑과 친교를 통한 봉사활동은 사회적 모범으로 손꼽히고있다。

한편 문공부의 종교단체 현황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25개국에서 1천3백명의 기독교선교관계 외국인들이 와서 활동하고있다。

이들 외국인들은 주로학교 병원 고아원 양로원등 사회복지 자선사업에 걸쳐 불우이웃을 돕고있다。

문공부의 집계결과 우리나라 기독교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는 세계기독교 신자증가율을 이미 넘어선것으로 밝혀졌다。우리나라 인구의 4명중 1명이 기독교인데 비해 세계인구의 5명중 1명이 기독교인인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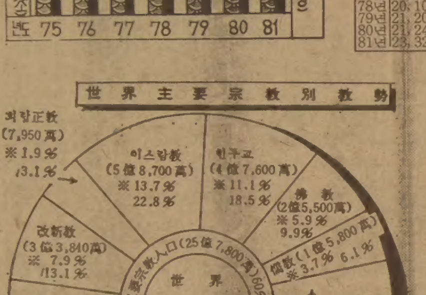
81년판 브리태니커 연감에 의하면 전세계의 44억1천4백72만 인구가운데 21·4%가 기독교(가톨릭 13·5%, 프로테스탄트 7·9%) 신자로 나타났다。

가톨릭은 5억8천만명으로 전세계인구의 13·7%를 차지한 이슬람교(5억8천7백만)보다 7백만명가량이 뒤지고 있다。

◇기독교교세증가현황

연도	개신교 교회수	개신교 교인수	천주교 교회수	천주교 교인수
75년	16,089	401만9천	2,265	101만2천
76년	17,846	466만8천	2,308	106만2천
77년	19,457	500만1천	2,319	109만3천
78년	20,109	529만3천	2,332	114만4천
79년	21,205	598만6천	2,339	118만9천
80년	21,243	718만	2,342	132만1천
81년	23,320	763만7천	2,353	143만9천

世界主要宗教別教勢



◇한국기독교 年表

▲1784(正祖8)李承薰이 北京에서 그라몽神父에게 세례를받고 돌아와 교회를창설함。
▲1791 (正祖15) 祠上奉祀문제로 야기된 소위 珍山사건의 尹持忠 權尙然등 全州에서 순교함。
▲1801 (純祖1) 周文謨神父 붙잡혀 새남터에서 사형당함。黃嗣永帛書발각됨。
▲1816 (純祖16) 丁夏祥이 北京교구의 피레스主教와 면담,조선교회의 서신을전달함。
▲1831 (純祖31) 로마교황 그레고리오 16세가 北京으로부터 독립하여 조선교구를 설정함。
▲1846 (憲宗12) 金大建神父 玄錫文등 새남터에서 순교함。
▲1866 (高宗3) 프랑스선교사 9명이 처형됨。독일계 미국인 오페르트 영국배 로나號로 서해안에 상륙함。미국상선 재너럴·샤먼號 무역을 목적으로 대동강을 거슬러 平壤에 상륙하려다 실패, 모든 선원이 살해당함。조선정부는 척화비를 세우고 배외정책을 강화함。
▲1884 (高宗21) 선교사이며 의사인 호레이스·알렌이 來韓함。
▲1885 (高宗22) 미국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배로 한국에 도착함。스크랜튼선교사도 한달사이로 입국。
▲1886 (高宗23) 아펜젤러가 세운 培材학교 개교。스크랜튼夫人에 의해 梨花여학당개교됨。언더우드,날렌,헤론에의해 관립학교 창설됨。
▲1890 (高宗27) 천주서울교구장 블랑의 별세에따라 뮤텔主教가 후계자가됨。미국선교사들에의해 조선聖教書會 설립。
▲1891(高宗28)영국성공회가 仁川에설립됨。
▲1892(高宗29)龍山에 가톨릭神學校세워짐。
▲1897 (光武1) 미국장로회 베어드가 平壤에 崇實학당을 설립。
▲1899(光武3)러시아정교회선교사 니콜라스가 서울에 도착함。미국선교사 에비슨이 濟衆院(5년후 세브란스로개칭) 을세움。
▲1906 (光武10)드망지 主教를 사장으로 한국천주교회가 경영하는 주간지 京鄕신문이 창간됨。
▲1908 (隆熙2) 천주교뮤텔主教의 알선으로 베네딕토修道會가 한국에진출。
▲1909 (隆熙3) 周時經이 미국선교사 게일등과같이 한국어연구회 조직함。
▲1910 (隆熙4) 미국선교사 어빈 釜山나병원 개설。
▲1910=연합감리교 신학대 설립。구세군사관학교 창립됨。
▲1911=교황 비오10세 大邱牧區설정。
▲1914=조선기독교청년회연합회 결성。
▲1917=延禧전문학교 인가。
▲1922=세계YMCA에 가입。대한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 창립됨。
▲1925=梨花학당을 梨花여자전문학교로 개칭。한국 79위복자 시복식이 교황 비오11세 집권하에 거행됨。
▲1926=무교회주의운동이 일어남。
▲1927=천주교서울교구에서平壤教區독립。
▲1931=최초 전국주교회의 개최。
▲1934=聖友청년회운동 시작。
▲1936=기독교하나님의 교회공의회 창립。
▲1938=하나님의 교회창립。平壤신학 신사참배문제로 폐교。
▲1940=日帝 平壤에서 성당 징발하고 신부들을 추방함。
▲1941=조선성서공회를 대영성서공회서 인수。
▲1944=주기철목사 옥사。
▲1947=만국기도회 (1주간) 실시。
▲1948=WCC제1회총회에한국대표참석。
▲1950=합동찬송가 기독교서회에서 발행。서울서 해방후 첫주교회의개최。
▲1951=종군군목제도 창설。
▲1952=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발족。
▲1953=대한예수교장로회와 기독교장로회로 분립됨。
▲1954=한국신학대학 설립。
▲1956=CBS아침방송 개시。
▲1958=루터 선교부 조직。한국대학생 선교회 창립。
▲1959=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합동으로 分立。임마누엘 루터교회 창설됨。
▲1960=다락방 전도협회 설립。
▲1962=교황 요한23세 한국교계제도교서반포,교계제도설정식 서울서 거행함。
▲1963=합동찬송가 위원회 조직。한국기독교 교역자창립총회개최함。
▲1965=전국신학대학협의회 창립。
▲1966=가톨릭개정기도서 교황청에서인준。

江陵 濊國城 담으로사용
中宗때 築造된것、保存 아쉬워

【江陵】강원江陵시 한복판에 1512년(中宗)에 축조한 것으로 보이는 城이 가정집 담으로 사용되고 있어 보존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江陵시 林唐동59와 南門동175 일대에는 正德壬申年(1512년)에 土城을 石城으로 개축한 濊國城이 50여개 남아있으나 金乙東씨(60)등 주민10여가구가 살면서 성을 담으로 사용하고 있는것。

江陵시 臨瀛誌에 따르면 江陵지방에는 普賢山城 羽溪山城 濊國城 溟州城등이 있었으나 현재 형체가 남아있는 것은 濊國城(예국성)뿐으로 예국성은 1512년에 토성을 길이 3천7백자、높이 5자의 石城으로 개축한것으로 전해지고있다。

특히 이예국성에는 당시 동네가 살고있었으며 우물 145곳과 연못○곳이 있었다고전해지고 있으나 현재는 흔적을 찾을수 없게됐다。

문화재 권위자인 咸鍾泰씨(74·江陵市洪濟동16)는『이 성(城)안에서 씨족이 형성돼 도시를 이루었는데 다른 문화재는 보존하면서 江陵의 얼이 담기고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성을 가정집담으로 사용하게해 자취를 잃게 하는것은 알수없는일』이라고 전제『현재 남아있는것만이라도 원형대로 보존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聆】

◇1512년에 축조한것으로 보이는 江陵市林唐·南門洞에 있는 예국성(濊國城)이 가정집담으로 사용되고있다。

외교관被殺
國境에 2개師
美 ABC放送

【뉴욕10日UPI=聯】이스라엘은 포클랜드사태로 미국의 관심이 남대서양에 쏠리고 있는 틈을 타 곧 남부레바논에 대해 대대적인 군사행동을 취할지도 모른다고 미국의 ABC방송이 9일 보도했다。

이방송은 미국정부 당국자들이 이스라엘의 남부레바논 공격의 시기가 임박한것으로 믿고있다고 전했다。

이방송은 미관리들의 견해임을 전제、이스라엘이 레바논국경일원에 2개사단을 배치하는등 남부레바논 공격을 위한 준비를 완료했으며 메나헴·베긴수상이 곧 진격명령을 내릴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416)533·2361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83>

明暗 ⑰

朴婉緒 作
金光培 畵

집까지 바라다줘야 한다고 우기는 기욱을 수지는 한사코 따돌렸다。오빠와 올케가 그를 양혼자처럼 환대할게 뻔했기 때문이다。기욱은 쉽사리 그들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수지를 찌는 일에 한목 단단히 거들게 할것이다。수지는 도저히 안찌히고는 못견딜것같은 막연하면서도 확실한 예감에 전율했다。

그럴수가? 차마 어찌 그럴수가? 그녀는 자기를 기다리고있는 통속적인 운명에 구역질이 났지만 그것을 애써 거역하고 휘둑할수있는 삶의 신산(辛酸)함을 이미 엿본 뒤였다。

가까스로 혼자가 된 수지는 시계를 보았다。열시가 가까운 시간이었다。타는듯한 느낌으로 인재가 보고싶었다。여지껏 서로서로의 사정에 의해 만나고싶을 때 못만난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언젠가는 석달이나 서로 못만난 적도 있었다。인재가 말아가르치던 재수생의 마지막 총정리가 보다 효과적이기를 바라는 재수생 부모의 각별한 호의에 의해 대학의 긴 겨울방학동안을 제주도에 있는 별장에서 한 발자국도 못벗어났기 때문이다。

그 석달동안 제주도는 두 사람에게 똑같이 어찌나 원한 깊은 섬이었던지 다시 만나자마자 둘이 거의 동시에 한 말은 우린 신혼여행도 제주도엔 가지말자였다。두 연인들을 석달씩이나 갈라놓은 섬이라면 그 정도의 앙갚음은 헐한 편이었다。그러나 그 석달의 막바지에도 지금처럼 타는듯이 보고싶었던것 같진 않다。

꼭 뭔 일을 저지르고 말것처럼 보고싶었다。그래 뭔일을 저질러야 해。수는 그 수밖에 없어。

수지도 그 뭔 일에 모든것을 산뜻하게 해결할수있는 가능성을 걸었다。

그나저나 그는 어디 있는 걸까? 아직도 서울역 광장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걸까? 아니지 단골 순대국집에서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을 시간인걸。인재의 취직을 큰 출세처럼 대견하게 여기는 마음씨 좋은 주인 아줌마가 아마 지금쯤 내일의 출근을 염려해 그를 억지로 내쫓고 있을지도 모른다。그 아줌마라면 능히 그렇게 해줄 거야。

수지가 정말 가고싶은 곳은 인재의 하숙방이었다。인재의 하숙방을 드나들기 시작한 건 극히 최근의 일이고 몇번 되지도 않았다。그전엔 주로 입주 아르바이트여서 드나들만한 하숙방조차 없었으니까。

인재가 졸업을 자그마치 석달이나 앞두고 취직이 되어 혼자 쓰는 하숙방을 갖게 되었을 때 두 연인들은 얼마나 가슴을 울렁거렸던가? 정이 깊어질수록 만날때마다 아쉽고 감질나 사람의 기쁨, 절제하기 고통스러운 젊은 열정은 문득문득 사람들의 눈을 가려줄 그들만의 사면의 벽을 간절히 원하게 했다。그렇다고 방갈로나 여관방을 찾아들만큼 그들의 욕망이 구체적인 건 아니었다。

길고 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 호젓한 뒷골목을 한없이 헤매다가도 수상쩍은 여관의 불빛을 보면 부정 탄것처럼 얼굴을 찌푸리고 그 앞을 피해 다녔다。

그들이 남 안오는데서 하고싶은 짓하고 이 세상의 남자와 여자가 여관방에서 흔히하는 짐승같은짓하고는 엄연히 다른 거였다。그들이 벼속에서 하고싶은 짓은 헤어지기 아쉬울때 석별의 정으로 나눈 애무보다 조금만 더 깊은 애무、남의 눈을 피해 훔친 번갯불 같은 입맞춤보다 좀더 깊은 입맞춤、그리고 서로의 눈빛을 그윽히 바라볼수있는 평화로운 휴식이었다。

제7회 캐나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미녀들의 출전 환영!

캐나다 전역의 교포미녀들의 다수 출전을 바랍니다.

입상미녀들은 토론토에서 실시되는복합문화 축제 캐라반 행사에 참가하며.

최고미녀「진」은 모국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선」은 캐라반 미녀선발대회에 출전할 영광이 주어집니다.

때 : 1982년4월24일(토) 하오6시
곳 : 다운타운 HOLIDAY INN (토론토시청뒤)

●응모자격 : 캐나다에 거주하는 미혼 한국계 여성
●연 령 : 만17세부터 만25세까지
●신청서류 : (1)신청서 1매 (2)사진 2매(명함판)
●제 출 처 : THE KOREA TIMES LTD.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신청마감 : 1982년 4월17일 하오 5시
●의 상 : 수영복·이브닝드레스·한 복
●문 의 처 : 한국일보사 (416) 533-2361~4
●기 타 : (1)미스코리아 "진"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미스코리아 전국결선대회에 출전하여야 함. (2)입상자 전원은 82년도 캐라반 행사에 참가해야 한다.
●입 장 료 : $30.00(디너·쇼, 댄스포함)

주 최 : 토론토 지구 한인회
후 원 : 한국일보사

상품기증

○. 아시아왕복 항공권 (제일여행사)
○. 로렉스 여자용손목시계(은하보석상)
○. 진주목걸이,진주반지, 진주귀걸이(14K Gold) 고급화장품 3셑트(미도파)
○. 고급여자용 썬글라스2개(불란서제) (블루아안경점)
○. 녹용($150상당), (동양한약상사)
○. 휴·셑트($100 상당)(블루아 하드웨어)
○. Webster 사전 (3권) (신용목)
○. 고급벽시계(김종조 종합보험)
○. 금일봉 ($100) (황재필)
○. 참가자 전원에게 꽃다발(코리아타운 번영회)
○. 20" Panasonic Color TV 1대 (아카데미 TV및 파나소닉사제공)
○. 이태리안 3 Colour 금목걸이 (Young-Sook's Jewellery)
로마노미용실 (고급불반서화장품 1Set . $200상당
D. Y. 식품 캐나다총판 가주미 25Lb. 10포대 오기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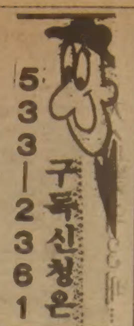
※상품기증 하실분은 한인회로 연락바람.
☎ : 755-9288

1982년도 MISS KOREA OF CANADA
참가신청서

1. 성 명 :
2. 주 소 :
3. 전 화 :
4. 생년월일 :
5. 특 기 :
6. 학 력(최종학교명) :
7. 직 업 :
8. 신 장 : 인치
체 중 : LBS.
바 스 트 : 인치
웨이스트 : 인치
히 프 : 인치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畵

"어이, 대구우드… 오늘밤에 포커하세" "쉬—잇" "마누라가 엿듣고있을지도몰라" "엿듣다니—누가, 내가요?!"


구독신청은 533-2361

뒤셀도르프 오늘光州 3次戰

하오3시 無等山경기장 1승1패 互角의 接戰…최종 한판

서독프로축구 뒤셀도르프와 한국대표팀간의 최종3차전 경기가 오늘(11일) 하오3시 光州 無等경기장서 벌어진다. 방한 첫경기에서 한국에 3-2로 역전승을 거두었던 뒤셀도르프는 9일저녁 釜山서 열린 2차전에서 姜信寓의 문전헤딩슛(후반16분)을 막지못해 0-1로 칠패, 두팀은 각각1승1패의 互角을 이룬 가운데 11일의 최종경기서 승패를 가리게 되었다.

투톱시스템試驗등 戰力보완 힘써 한국팀
個人技 앞세워 正面기습돌파作戰 서독팀

◇한국—뒤셀도르프 2차전에서 李康助가 문전으로 볼을 띄워주자 丁海遠과 옴슐레브가 헤딩으로 다투고있다。 【釜山=鄭範泰기자·電送】

강력한 팀웍과 젊음을 자랑하는 뒤셀도르프는 방한 1, 2차전을 통해 西獨프로축구의 수준높은 테크닉과 한단면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그들의 성실한 플레이는 국내팬들에게 감명을 주었다.

뒤셀도르프 선수들의 경기내용을 분석한 국내관계자들은 『과거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팀 중에는 뒤셀도르프보다 강했던 팀이 몇몇 있었으나 선수들의 의욕이나 플레이자세에 있어서는 뒤셀도르프가 단연으뜸』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같은 평가에 대해 뒤셀도르프의 버거 감독은 『한국에서의 경기가 단순한 친선경기가 아니고 분데스리가 경기의 연장이기때문에 최선을 다하는것이며, 이번 방한경기를 통해 장래성있는 2陣級선수들에게 귀중한 경험을 쌓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 이번 3차례의 경기가 뒤셀도르프의 전력강화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시인했다.

뒤셀도르프는 주장인 FW 벤젤을 중심으로한 공격진의 호흡이 좋았고 공수전환도 기민했다. 외곽에서의 센터링을 문전에서 헤딩으로 연결시키는 「포스트 플레이」에 의존하지않고 개인기로 한국의 정면을 기습돌파하는등 다양한 패턴의 공격을 보였다. 수비에서도 지역방어와 대인방어를 상황에따라 적절히구사했다.

오는 11월 印度 아시안게임에 대비, 강화훈련을 벌이고 있는 한국대표팀도 이번 뒤셀도르프와의 경기를 통해 17명대표선수의 기량을 재평가하고 攻守기능의 결점을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있다. 특히 후반서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체력열세에 대해 고심하고 있으며, 공격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수비력을 어떻게 안정시킬것인가 하는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1차대결때 투톱시스템을 시험했던 한국은 9일의 釜山 2차전서 崔淳鎬를 포스트에 세우고 邊炳柱를 오른쪽에, 丁海遠을 왼쪽날개로 활용, 공격의 변화를 시도했는데 11일 光州최종전서 金正男·金鍾夫 코칭스태프가 어떤 카드를 들고나올지 주목된다. 【安孝煥기자】

롯데、다시單獨선두

프로野球 金貞洙 맹활약

【釜山=方錫鶴기자】 안타봉발로 고심하던 롯데·자이언츠의 3번 金貞洙(29)가 10일 九德홈그라운드서의 결전에서 선제타점과 결승점을 올리며 맹활약, 롯데를 단독선두로 끌어올렸다。롯데·자이언츠는 호적수 三星라이온즈를 金貞洙의 2적시타등 7안타로 적공, 3-2로 물리치고 大邱에서의 패배(6-3)를 설욕, 4승2패로 다시 단독선두에 올라섰다。

롯데의 사이드드로 盧相守는 9회동안 37타자를 6안타, 5포볼, 6삼진, 9땅볼, 9플라이로 막아 통산3승1패를 기록했다。

한편 春川경기에서 MBC 靑龍은 1·4·5·7회의 안타를 비롯, 두 게임에 연타석 안타를 기록한 6번金龍雲의 수훈으로 三美슈퍼스타즈에 3-1로 완승, 5승3패로 단독2위를 마크하고 있다。 OB베어스와 해태타이거스의 全州경기서는 OB가 3-0으로 승리했다。

선두를 가리는 중요한 한판。三星은 우완 黃圭奉, 롯데는 사이드드로 盧相守를 기용, 두 에이스의 변화구로 대결했다。

롯데는 3회말 프로야구개막이래 15타수2안타의 빈공으로 고심하던 金貞洙의 적시타로 선제1점을 얻었다。 9번 權斗祚가 포볼, 1번 鄭學守가 좌전안타로 각각 진루, 2死1、2루의 찬스에서 金貞洙가 통렬한 중전적시타를 터뜨려 2루주자 權을 홈에 불러들였다。

5회초 三星은 7번 成學洙가 포볼을 고르고 8번 裵大雄이 우전안타를 때려 無死1、3루를 이루자 2번대타 宋鍾浩의 2루앞땅볼로 裵大雄을 홈에 불러들여 1-1의 타이를 만들었다。

롯데는 6회말 두번째로 터진 金貞洙의 우전적시타를 발판으로 승리의 제기를 잡았다。선두1번 鄭學守가 중전안타로나가 2번 金一煥의 보내기번트로 2進、3번 金貞洙가 우익수옆을 뚫는 날카로운 안타로 鄭을 홈인시켰고 金역시 6번 金成瑄의 스퀴즈번트로 생환, 3-1의 리드를 잡았다。

三星은 8회초 5번千普成의 우월적시2루타로 1점을 만회, 3-2로 바짝 추격하고 9회초 鄭丘旺이 내야안타로나가 2死와적실로3進、2死3루의 동점기회를잡았으나 1번張泰洙가 삼진당했다。

◇전기중간순위 (10일현재)

팀	승	패
①롯데	4	2
②MBC	5	3
③삼성	4	3
④OB	3	4
⑤해태	2	3
⑥삼미	2	5

◇제8일전적

◇부산

팀	1	2	3	4	5	6	7	8	9	계
삼성	0	0	0	0	1	0	0	1	0	2
롯데	0	0	1	0	0	2	0	0	X	3

◇춘천

팀	1	2	3	4	5	6	7	8	9	계
MBC	0	0	0	0	1	1	1	0	0	3
삼미	0	0	0	0	0	0	0	1	0	1

◇전주

팀	1	2	3	4	5	6	7	8	9	계
OB	0	0	0	0	0	0	1	2	0	3
해태	0	0	0	0	0	0	0	0	0	0

流星의 賦

<355>

李炳注作 李友範畵

고독한 英雄 ⑩

이때 홍계남은 비로소 처음으로 행재소(行在所)에 장계를 올릴 결심을 했다。자기의 군대를 정규 편제속에 들게 하거나 행재소、즉 임금의 명령을 직접 받아 행동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싸워 이겨도 져도 전사자나 공로자들이 보람을 볼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임진년 5월 25일부로 된 홍계남의 장계는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다。

『전 오위부장(五衛部將) 홍계남은 행재지에 계시는 주상님께 삼가 절을 올리고 미충의 일단을 아뢰까 하옵니다』

계남이 자기의 관직을 「전 오위부장」이라고 쓴것은 그동안 자기의 병부상(兵部上)의 신분에 변동이 있지 않을까 해서이고、현직 오위부장으로선 직속상관을 통하지 않고 장계를 올리지 못하는데、현재로선 자기의 직속상관이 누구인질 알수 없었기 때문이다。

계남의 장계는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신은 지금 병 575명을 거느리고 광주산성(廣州山城)에 있읍니다。이미 죽천、충주등지에서 적과 전투하여 비록 대첩은 아니나 망정 몇차례 소첩을 올린바 있읍니다。임진강에 회전(會戰)이 있다고 듣고 충주로부터 급거 달려갔던 바、전투는 이미 우리의 패전으로 끝나 있었읍니다。그래서 군의 주류와 합류할 수 없어 한성의 탈환을 목표로 하고 광주 산중에 진을 치고 있는데 전라 순무사 이광이 대군을 이끌고 북상한다는 소식을 듣고 부하를 파견하여 합세를 제의했던바 우리 군대를 해체하고 그 휘하대(麾下)에 분산 입대하라는 대답이 있었읍니다。그러나 신이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은 지금 신이 거느리고 있는 다대수의 군사는 신을 좇아온 의병들이라서 신과 헤어졌을 경우、과연 그 사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 두려워서입니다。그런고로 신은 양주、광주지역에서 양동(佯動)으로 적의 이목을 유인하여 이광군의 한성 접근을 용이하게 한는 한편、이광군과 왜군이 한성부근에서 접전이 있을 경우、신의 군대는 적의 배후를 찔러 한성의 탈환을 피할까 하옵니다。그리고 이어 경기 충청에 잔류하는 적을 무찌를 예정입니다。그러 하오나 혹시、주상의 경호가 시급하다 하오면 명을 받자와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갈 것이옵니다』

계남은 이 장계를、전에 한응인의 군에 있다가 자기의 막하로 들어온 평안도출신의 병사에게 맡겨 평양으로 보냈다

이 사자(使者)의 출발은 왜군이 임진강을 건너 일제히 북상을 시작한 날과 때를 같이 했다。그리고 사자가 평양에 도착했을 때엔 왕은 이미 평양을 떠나 의주(義州)로 향하고 있었다。이어 적의 일번대 소서행장(小西行長)은 6월14일 대동강을 건너 평양에 입성하고 있었다。국왕의 의주 출향은 이에 앞선 6월11일。

그런데 계남이 장계에 기록한 바 있는 이광의 대군은 6월6일 경에 용인에서 대패하고 말았으니、장계는 결국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되어 버렸다。선조가 미리 장계를 볼 수 있었더라면 홍계남의 그후의 생애가 어떻게 진전되었는지 모를 일이다。아뭏든 계남의 장계는 임금의 안전에까지 가지 못했다。

소아마비 拳鬪선수 奮戰

1·2회勝利、8强圈서 憤淚

【晋州=李德佑記者】 소아마비로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도 1·2회전 관문을 통과했던 李德佑(진주성중체)가 8강권 한발 앞에서 좌절했다。

제35회 전국신인 아마 복싱선수권대회 사흘째경기(10일 장충체육관)에서 라이트급3회전에 나선 李德佑는 金忠錫(인천슈퍼체)에게 좌우연타를 맞고 1회 1분46초만에 RSC로 패했다。오른쪽다리가 가늘어보이는 李는 테크닉과 유연한 허리놀림으로 판정승을 거두고 3회전에 진출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관중들은 초인적의지로 선전한 李를 박수로격려했지만 李는 링을 내려와 한동안 눈물을 흘렸다。

라이트급 2회전서는 대원체육관 소속 崔龍洛이 가장 돋보이는 기량을보여 박상원(LAS)에 소나기 좌우훅을 퍼부어 1회56초만에 KO승했다。

海外토픽

교편잡는 英國왕자

★에드워드、오는9월에

◯…엘리자베드여왕의 3남1녀중 가장 총명한 자녀로 알려진 에드워드왕자(18)는 현재 스코틀랜드의 애버딘셔에 있는 고든스타운고교에 재학중인데 오는9월 졸업하는대로 이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있는 뉴질랜드 왕가누이고교에서 2학기동안 교편을 잡을 예정이라고。

에드워드왕자가 가르칠 교과목은 아직 밝혀지지않았으나 뉴질랜드에서 교편생활을 마친다음에는 케임브리지대학에 진학할 계획이라는것。

영국왕자들이 대학진학을 앞두고 본국을 떠나 英연방국에서 수업하는것은 하나의 전통。에드워드왕자의 큰형인 찰스황태자는 1966년 濠洲의 지롱고교에서 수학했으며 또한 현재 해군헬機조종사로 포클랜드군도작전에출전중인 둘째형 앤드루는 캐나다의레이크필드고교에 다녔었다。【런던=AP】

◇復活節 높이뛰기 美높이뛰기 챔피언인 드와이트·스톤선수가 로스앤젤레스 부근의 센추어리시 부활절 축제행사에서 3명의 LA플레이보이클럽의 버니걸들의 머리위를 뛰어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9日AP電=聯合】

首都이름 3번바꿔

★포클랜드 1주일만에

아르헨티나가 말비나스群島라고 부르는 포클랜드군도의 수도이름이 일주일도 안되는사이에 3번씩이나 바뀌었다。

영국이 포트 스탠리라고부르던 이마을은 처음에 아르헨티나가 푸에르토리베로라고 바꾸었고 그후 푸에르토 데 라 이슬라 솔레다드라고 불리었으며 아르헨티나 총독이 이곳에 부임하면서 푸에르토 데 라스 이슬라스 말비나스로 변경됐다는것。【부에노스아이레스=AP】

五輪鑄貨 판매계획 LA組職委서 취소

【로스앤젤레스9日UPI=聯合】 약1억2천5백만달러의 수입을 올릴것으로 기대됐던 84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기념주화 판매계획이 무산됐다고 로스앤젤레스올림픽조직위원회가 9일 발표했다。

피터·우베로드 로스앤젤레스올림픽조직위원장은 민간회사들이 올림픽기념주화를발행、시판하려던계획이 美下院의승인 지연으로철회됐다고밝혔다。

"교포여러분께 알리는말씀"

그동안 저희 D·Y 식품을애용해 주신 여러분께깊은 감사를드립니다.

이번 팬·아시아가 광고한 가주미는 D·Y 쌀이아님을 알려드립니다.

D·Y 쌀에는 겉에 "u·s. NO1 EXTRA FANGY" 라는 표시가 있으며, NO. 2 나 NO.3 와는전혀 달라 "국보" 쌀과 질이 거의 같은 쌀로서 팬·아시아 가주미 보다는 질이 월등하고, 가격도 다릅니다

교포여러분께서는 혼동하지마시고 더욱 D·Y가주미를 애용해 주시고, 성원바랍니다.

D·Y 가주미

한밭식품 : 274—5401
서울식품 : 291—8317
삼복식품 : 743—8270
제일식품 : 532—1054
D·Y·IMPORT CO. 749—0579

팬아시아에서 취급하는가주미

市場개설요건 강화

營利法人에만 허용

직영점포 30%넘어야

기존시장은 3년안에 갖추도록

정부는 시장의 효율적인 발전과 유통사업의 근대화를 유도키위해 상설시장의 규모、영업자수、매장면적등 개설요건을 강화、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했다。또한 상설시장의 개설자는 영리법인에게만 허용하고 자본금은 5천만원이상、시장개설허가 건물면적의 30%이상을 자기소유 또는 직영점포로 갖도록했다。지난연말 공포된 시장법을 뒷받침하기위해 관계당국이 마련한 시장법시행령및 시행규칙안에 따르면 상설시장은 도매시장、소매시장、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포등 5개유형으로 분류하고 각시장별 영업자수、건물규모、매장면적및 시설등을 규정해서 신규시장은 이런 요건을 갖춰야 허가해주고 기존시장은 점차 시설개선을 유도키로했다。

市場法시행규칙 7월1일부터 실시

시장별 요건을보면 ▲도매시장은 영업자수 30인이상에 건물연면적 5천㎡(1천5백2평)이상▲소매시장은 영업자 25인이상 건물연면적은 1천㎡(3백2평)이상▲백화점은 직영매장 50%이상에 영업자는 1인이상 건물규모는 5천㎡(1천5백2평)이상(서울과 직할시 이외지역은 3천3백㎡이상)이상▲쇼핑센터는 영업자 25인이상에 건물규모 3천3백㎡(9백96평)이상▲대형점은 수퍼마켓 전문점 대중종합점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영업자수 1인이상에 건물규모 1천㎡(3백2평)이상으로 규정하고있으며 각시장마다 매장면적은 건물연면적의 60%이상이 되도록하고있다。

상설시장의 개설자는 개인명의로 할수없고 상법상의회사로서 자본금5천만원이상、시장개설허가 면적의 30%이상을 자기소유나 직영점포로 갖도록 규정하고있다。

정부는 또 연쇄화사업의육성을위해 사업종류를 회사형연쇄화사업과 가맹점형연쇄화사업으로 구분 ▲회사형연쇄사업자는 7개이상의 직영수퍼마킷 또는 20개이상의직영편의점을▲가맹점형 연쇄화사업자는 20개이상의 가맹수퍼마킷 또는 50개이상의가맹편의점을 운영토록했다。

또 수퍼마킷 매장면적은서울특별시와 직할시는 2백50㎡(76평)이상、기타지역은 2백㎡(60평)이상으로하고 편의점은 식료품위주로 對面판매방식 또는 자기서비스방식에의해 판매하는 소매점포로서 매장면적은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는 2백50㎡~30㎡(76평~9평) 기타지역은 2백㎡~25㎡(60평~8평)를 갖추도록하고있다。

정부는 이같은 상설시장개설요건안을 마련해놓고 현재 각계의 의견을듣고있는데 의견이 종합되는대로 곧 최종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그러나 정부는 최종안이 확정되더라도 기존상설시장에 대해서는 3년간의 준비기간을 두어 요건을 갖추도록하고신규개설허가때는 새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輸出入절차 손쉽게

貿協、간소화방안 24일까지 마련

貿協은 올들어 부진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출의 촉진을 위해 수출관련조합들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상공부및 업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출입절차간소화실무작업반을 편성、오는24일까지 전반적인 수출입절차 개선방안을협의、이를정부에제출할계획이다。

10일 貿協에 따르면 상공부·공업진흥청·은행및 업계의 전문가 45명으로 구성된 수출입절차간소화 실무작업반은 오는24일까지 일반수출입관리·수출금융·외환관리·수입관리등 7개부문에 대한 간소화방안을 마련키로했다。

貿協은 또 수출촉진대책본부를 통해 수출업체를 순방、수출을 독려하는 한편 수출상 애로및 건의사항을 파악키로 했다。

중소기업稅金 너무많다

"大企業의 3배…稅制·금융혜택 줘야"

企協중앙회 건의

中小企協중앙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및 금융상의 지원을 대폭강화해줄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中小企協중앙회가 10일정부에 건의한 『중소기업 당면문제및 대책』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대기업의 3배이상에 달하는등 현행稅制가 대기업감면위주로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법인세율을 소득계급에따라 1천만원이하는 15%、5천만원이하는 22%、5천만원 초과는 33%등 3단계로하여 전반적으로 내리고 재투자확대를위해 지상배당세를 폐지하고 배당소득세를 10%에서 6%로인하할것을 건의했다。

또한 수출손실준비금설정범위를 수출금액기준으로 단일화하고 2년후에도 종합소득합산에서 제외하여 중소기업대손충당금범위를 1%에서 2%로 확대할것을 건의했다。

중소기협중앙회는 금융지원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국민투자기금중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현재의 1.8%에서 10%이상(1백20억원에서 6백80억원)으로 확대하고 시중및 지방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율을 32.7%와 57.2%에서 50%와 70%로 각각 확대할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5차 경제개발계획기간중 중소기업부문에대한 투자를 3.2%에서 10%이상(2천6백42억원 에서 8천2백40억원)으로 늘리고 제2금융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율을 30%이상으로 무화하여 中小기업시책자금 金利를 현행 15%에서 12%로 수출금융 金利수준으로내리는한편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를 조기에 설립할것을 주장했다。

中小기업 제품구매 公共기관에 의무화

정부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을위해 공공기관의중소기업제품 구매노력을 제도화、조달청등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때 기관별이나주요품목별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를 정해 사들이도록하고 품목별로는 해당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 계약을 체결할수 있도록 했다。

벼랑에선 株價

指數 百70·9 2週째 내리막길

연2주째 약세기조를 면치못해온 주가는 10일 주말시장에서도 큰폭으로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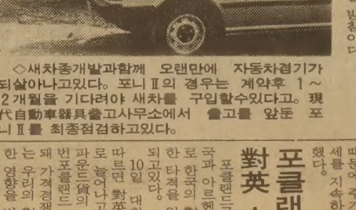
이날 2백10개 거래종목가운데 오른종목은 54개에 불과했으며 98개종목이 떨어져졌다。

특히 전자주의 낙폭이 심해 전기및전자주가지수는무려3.1포인트나하락했다。석유화학 건설및 무역주도 큰폭으로 떨어져 장세를 전반적인 하락세로 이끌었다。

이에 따라 종합주가지수는 전일보다 1포인트가내린 1百70.9에 머물러 연초 수준을 유지했다。

證市관계자들은 경기전망의 불투명、市中자금사정의악화추세、신용物 상환기도래에 따른 賣物증대및 뚜렷한 호재가 나타나지 않고있는데다 장세의 불투명으로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처럼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자동차、3월중 1萬臺팔려



◇새차종개발과함께 오랜만에 자동차경기가 되살아나고있다。포니Ⅱ의 경우는 계약후 1~2개월을 기다려야 새차를 구입할수있다고。現代自動車器具출고사무소에서 출고를 앞둔 포니Ⅱ를 최종점검하고있다。

계절적인 수요기와 새로운 車種개발등으로인해 움츠렸던 국내자동차경기가 점차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3월중 現代·새한·起亞등 자동차3社의 내수판매실적은 모두 9천3백39대에달해 지난1월의 5천8백2대 2월의 6천6백56대에 비해 3~4천대가량이 늘어났다。

특히 지난달15일부터 출고가 시작된 포니Ⅱ의경우 그동안 5천여대분이 계약돼 이가운데 2천5백대가량이 출고됐는데 최근에는 하루평균 1백여대씩의 주문이 밀려들어 25~30일이상이나 기다려야 제품을 인도받을수있는 실정이다。

포클랜드 紛爭 對英 수출타격

포클랜드군도를 둘러싼 영국과 아르헨티나간의 분쟁으로 한국의 對英무역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것으로 전망되고있다。

10일 대한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對英수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반해 英파운드貨의 약세화추세가 이번포클랜드 사태로 더욱악화돼 가격경쟁력에 의존하고있는 우리의 對英수출이 심각한 영향을 받게될 전망이다。

英國파운드貨는 지난해 1파운드對 美弗2달러40센트선에서 지난2월 1달러89센트로떨어졌고 최근 1달러77센트선 이하로 계속 떨어지고있다。

財務部 본부職員 10% 轉職희망

경제부처가운데 1급부처로 자타가공인하는 재무부에서 전체본부직원의 10%에 해당하는 50여명이 새로 설립되는 2개금융기관으로 전직할것을 희망하고있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있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재무부가 오는6월과 7월 新韓銀行과 제3投信의 개점을 앞두고 서기관및 사무관급을포함한 5백여명의 본부직원을 대상으로 전직희망자를 조사한 결과에서 밝혀졌다。

經濟短信

▲공정거래 有功단체표창＝金埈成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0일 공정거래제도시행 1주년을맞아 제도정착에기여한 商議、

全經聯、中小企協、소비자보호단체협회에감사패를수여。<사진>

▲大保株 20일 公賣＝大保증권 주식 6백94만7백70주가 오는 20일 공개입찰을통해 매각될 예정。

▲雪嶽한국콘도미니엄 開館＝(주) 한국콘도미니엄은 10일、雪嶽洞에 지하1층、지상3층、48세대분의 설악콘도 (가족호텔)를 완공、개관식을 가졌다。

▲홍보간행물 전시대설치＝貿公은 수출상품의 대외홍보를 위해 金浦공항에 각종간행물 4천여점을 전시하는 전시대를 10일 설치。

▲廣告物 工業協同組合창립＝전국광고물 제작업자들은 10일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韓國광고물 공업협동조합을 결성。

▲現代、馬聯페낭교건설공사기공＝李明博현대건설사장은 지난연말受注한 馬聯페낭교건설공사 기공식을위해 11일 출국。

▲雜貨포장검사소、檢較正기관현판식＝한국 잡화포장시험검사소는 10일 한국수출산업공단3단지내에 있는 동검사소시험연구실에서 검교정기관 현판식을 거행。

▲大同工業、안성공장 준공＝大同工業(대표 金相秀)은 忠南일대 농촌에 농기계부품을 신속히 공급하고 아프터서비스를 강화하기위해 농업기계중부보급소 개소식을 10일 거행하고 아울러 한국체인공업안성공장증축준공식도 이날 거행。

財界 로타리

"財閥이되려면 골프를 즐겨라"

전국에 23개…極東건설·曉星그룹도 건설중

회원권 1장에 2천6백만원…대중화 막아

三星회장 홀인원3번

○…우리나라 재벌그룹 總帥들은 골프를 좋아한다。모두가 좋아하는것은 아니나 대부분이 즐기고있어 재벌이되려면 필수적으로 골프를 쳐야한다는 말이 나올정도。재벌총수들은 골프를치는 주요동기가 건강관리를 위해서라고 말하고있다。

재벌총수들이 자신의 건강관리에 깊은 관심을 쏟는것은 당연하다。엄청난 재산을관리하기위해서는 신체적인건강이절대적이기때문이다。

골프의 사치성이나 낭비성이 때때로 사회의 비판을 받지만 과격하지않고 8㎞이상을 걸어야하는 골프가 평소 운동량이 부족한 재벌총수들에게는 안성마춤의 스포츠이자 건강관리의 수단으로 이용되고있는 것이다。

골프를 가장 즐기는 재벌총수는 三星그룹의 李秉喆회장。핸디13인 李회장의 골프실력은 프로급이다。대부분의 열성스런 아마추어골퍼들이 일생동안 단 한번도 경험할수없다는 홀인원을 李회장은 세번씩이나 기록했다。지난해11월22일 安養컨트리 17번홀(133m)에서 아이언6번으로 친공이 바로 컵에 들어갔다。李源千씨(전 源進그룹회장)、權哲鉉씨(세종상사회장)등재계원로와 한조가돼 라운드한 李회장의 이날기록은 84타였다。

건강유지를 위해 매주세차례(수·금·일요일) 골프장을 찾는 李회장은 평소 건강이 나쁜 임원을 보면 『골프를 안치기 때문』이라고 단언할 정도로 골프건강론자이다。한때 케네드·스미드골프채를 사용하다가 요즘은 일제혼마를 사용한다。1세기이상된 골프채를 1천여개、골프세트(14~15개)를 1백개이상 가지고있는 골프채 수집가이기도하다。

대부분 프로급 실력

○…梁正模국제그룹회장도 핸디14의 프로급 골퍼。부산東萊컨트리에서만 골프를 즐기는 梁회장은 장타자로 유명하지만 스윙폼이 좋지않기로도 유명한편。필드에는 주2회정도 오랜 친구들하고만 나간다。골프채는 미제 윌슨。

평소 틈만나면 운동을하고 만능선수로 알려진 現代그룹 鄭周永회장의 핸디는18。체격조건에 맞게주문생산하는 미제케네드·스미드골프채를 사용하는데 20년이넘는 구력에도 불구、아직 홀인원을 기록못했다。월2회정도 경제단체장등 재계원로들과 필드에 나가는데 장타때문인지 OB(공이 코스경계선밖으로 나가는것)를많이 낸다。드라이버와 퍼터를 똑같이 1점으로 처리하는 골프룰이 균형을 잃고있다고 주장하는 골프룰개혁주창자이기도하다。매일아침 회사테니스코트에서 테니스를치고 골프는 격주로 일요일에만 친다。

롯데그룹 申格浩회장의 핸디는9로로·핸디。매주 일요일에만 필드에 나간다。

코오롱그룹 李東燦회장도 로·핸디(핸디9)이지만 일에 쫓겨 필드에 나가는 횟수는 1년에 3~4회정도로 그렇게 즐기는 편이 아니다。

曉星그룹 趙錫來회장은 한달에한번 정도 필드에 나가지만 핸디9로 프로급이다。

구력21년의 具滋暻 럭키그룹회장의 핸디는 22。월2회정도 주말을 이용、친구들과 어울려 치는데 홀을 가볍게 쳐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않는다고。골프채는 핀시커。許準九부회장은 지난78년9월5일 東萊컨트리에서 홀인원을기록했다。구력15년으로 핸디 16。매주일요일에 주로 친구들과 필드에 나간다。

崔鍾賢 鮮京그룹회장(핸디19)이나 崔元碩東亞그룹회장(핸디18)、朴容昆 斗山그룹회장(핸디10)도 골프실력이 모두 상당한 수준이지만 골프보다 테니스를 더 즐기거나 일에 쫓겨 필드에는 월1회、또는 2개월에 1회정도로 드물게 나가는 편이다。

韓進그룹 趙重勳회장은 건강보다는 사업을위해 골프를친다고 공언한다。

구력10년의 趙회장 핸디는16。주로 鄭周永씨등 전경련등 임원들과 자주 어울리는데 대단한 장타자로 평가받고있다。

골프外面한 總帥도

○…골프를 전혀 안치는 그룹총수들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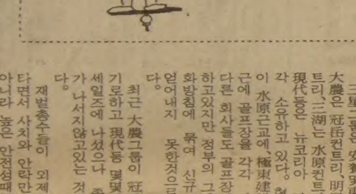
金宇中大宇그룹회장은 골프뿐만 아니라 일에 파묻혀 운동을전혀안하는 경영인으로 유명하고 朴仁天錦湖그룹회장이나 韓國火藥그룹 金昇淵회장도 골프를 안치는 재벌총수들이다。

골프가 한국에 상륙한지는 82년이됐다。1900년 元山세관구내 해안에 영국인고문들이 6홀의 골프코스를 만든것이 처음。

현재 전국의 골프장은 모두23개。이중 裡里의 八峰을 제외한 22개컨트리가 모두 국제규격인 18홀이상을 갖추고 있다。

골프인구가 10만을 넘어서면서대중화 추세를 보이지만 비회원제코스(퍼블릭코스)의 전무상태、비싼 입장료(그린피)、1백만원내외의 비싼 골프채값등이 골프의 대중화를 막고있다。

회원권 한장에 2천6백만~2천7백만원(서울컨트리)씩 하는등 대부분의 회원권이 5백만~1천5백만원씩에 거래되는것도 골프의 대중화를 막고 사회적인 비판의 소지를 마련해 주는것。어차피 소득수준향상등으로 골프인구가 크게증가하고있고 86년 아시안게임이나88올림픽에 대비해서라도 퍼블릭코스등 싸고 쉽게 칠수있는 골프장을 많이 만들도록 해야한다는 골프의 대중화 주장도 있다。



일본인의 골프열은 대단하다。지난 1월에 개장한 일본 湘南골프장은 5백구좌의 회원권을 3천만엔(한화약1억원)에 매출했으나 5일만에 매진됐다는것。

현재 일본의 골프장수는 1천3백60개로 매년 10~12개의 골프장이 신설되고있다。

冠岳컨트리、아직안팔려

○…골프장을 소유하고있는 국내재벌기업으로는 三星、現代、三湖、大農、明星、코오롱등이 있다。

三星그룹은 安養및東萊컨트리를、大農은 冠岳컨트리、明星은 明星컨트리、三湖는 水原컨트리、코오롱과 現代등은 뉴코리아 컨트리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현재 曉星그룹이 水原근교에、極東建設이 果川부근에 골프장을 각각 건설중에있고 다른 회사들도 골프장건설을 희망하고있지만 정부의 그린벨트관리강화방침에 묶여 신규 설립허가를 얻어내지 못한것으로 알려져있다。

최근 大農그룹이 冠岳컨트리를팔기로하고 現代등 몇몇기업에 대해 세일즈에 나섰으나 원매자가 나서지않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벌총수들이 외제고급승용차를 타면서 사치와 안락만을 위한것이 아니라 높은 안전성때문이라고 주장하듯이 건강관리와 교제를 위해 골프를 친다는 주장도 긍정적인면이 있기는하다。그러나 골프가 사치스런 운동으로 알려져있는 우리사회에선 재벌들의 골프붐에 대한 비판이 많은것도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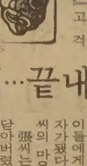
提報者의 人權

放火犯제보 張모씨의 엉뚱한 受難

人的사항 마구公開…끝내 가게문 닫아

釜山미문화원 방화사건 수사에서 유난히 눈에 띈 특징중의 하나는 「시민의 제보」가 그어느때、어느 사건보다도 많았다는 점이었다。그만큼 국민들의 反共의식이 심화돼 있는 증거라고 할까。

그러나 방화범인 文富軾과 비슷하다는 결정적 단서를 제공、2천만원의 현상금까지 받은 張모씨(40·여)가 지금 엉뚱한 정신적 고통에 허덕이고 있다。세상에 너무 알려져 생긴 張씨의 고통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미 우려됐던 일。많은국민들이『제보자를 저렇게 무방비상태로 공개해도 좋으냐』고 걱정이 많았지만 사실 사건수사뒷전에 밀려 張씨의「제보자로서의 인권」을 보살필을 받지 못했다。



張씨는 제보를 하면서 수사경찰과 취재기자에게 자신의 이름·주소·사진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했다。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한것이나 진배없는 권리 주장이다。

그러나 張씨의 간곡한 요구는 수사과정에서 어이없이 묵살되고 말았다。張씨의 얼굴은 그녀의 가게와함께 TV화면에 큼직히 박혀 방방곡곡에 알려졌고 이름과 주소는 신문지상에 마구 보도되었다。張씨가 한일이 떳떳한 것임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겠지만 만약 검거되지 않은 일당이 제보자 張씨에게 엉뚱한 위해를 가했다면 누가 그책임을 져준단 말인가。

당장 그같은 위험은 없다지만 張씨는 지금 현상금을 내던지고 제보안한 원상태로 복귀하고 싶은 생각뿐이라고 말한다。

『저여자가 제보자래』『저 여자가 제보하고 5천만원을탔대』등동네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것쯤은 참을만하나 張씨에게 빚을진 사람들이『떼돈을 벌었으면 기름쓰고받을것도 없지않느냐』며 외상값이나 빚을갚지않는데는 어이가없다는것。더구나 동네꼬마들까지 張씨의 아이들에게『네 엄마가 제보를해 부자가됐다며…』라고 손가락질해 張씨의 마음은 더욱 아프다。

張씨는 견디다못해 분식가게문을 닫아버렸다。자신의 고통이 아물고 사람들의 뇌리에서 이사건이 사라질때 다시 문을 열겠다는 생각이다。

최근 도시사회 범죄는 흉악화가 그특징의 하나다。그동안 일어난큰 사건들이 시민의 제보로 해결된것도 많다。정부도 도시게릴라형범죄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이탈리아의「붉은여단」이나 미국의「마피아단」의 제보자에 대한 보복은 너무나 잘알려진 일들이다。

이제 우리사회도「제보자의 인권」에 신경을 쓸때가됐다。이것은 비단 제보자를 보호한다는 좁은의미에서뿐만이 아니라 왕성한 시민의 제보정신을 시들게하지않기위해서도 긴요한 일이다。

【釜山이동독자부=方政俊기자】

한국일보 구독신청은 533-2361

토론토 한국일보사 제정

제2회 한인민족상 모집요항

한인민족상 수상후보를 모집하오니 널리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 문
   (가) 예술상: 캐나다 한인사회에서 문학·음악·미술·연극·무용·사진등 예술분야에서 특출한 공로자나 특기자.
   (나) 학술상: 학술적 저술·발명. 발견·심포지움등 학계·교육계에서 공이 큰 인사.
   (다) 봉사상: 공적、개인적으로 한인사회에 희생적 봉사. 그 결과가 뛰어난 인물.
   (라) 공로상: 한글교육·체육진흥등 기타 여러면에서 한인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체육특기등에 공로가 큰 인사.

2. 수 상 자 격
   (가) 캐나다 거주자 (한인)
   (나) 비한인(외국인)으로서 한민족의 문화선전. 한인계에 이바지한 공이 큰 인물.
   (다) 개인 또는 단체

3. 추 천 방 법

전국의 각단체가 1명씩 아래 양식에 의해 해당자를 추천하되, 5월15일이내에 본사 필착토록 해주실 것. 개인적으로 추천할 경우, 추천인 5명이 필요함.

1982년 4월 일

한인민족상위원회

위원장 구 상 회

한인민족상 후보 추천서

대상자또는단체 : (연령 : 성별 :)

주소및전화번호 :

시 상 부 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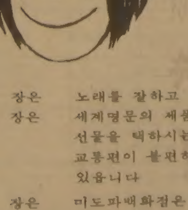
추 천 내 용 : (별지에 가능한한 자세히 기재. 관계증빙서류. 사진등 동봉요망)

추천인(단체) :

추천인주소·전화번호 :

보 내 실 곳 : THE KOREA TIMES TORONTO
1025 DUPONT ST. TOR. ONT. M6H 1Z7

TORONTO CHANG



● 토론토 장은 노래를 잘하고 항상 손님에게 친절하다고 그러더군요.
● 토론토 장은 세계명문의 제품을 고루 갖추고있으며 교포여러분의 귀국시 선물을 택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져 염가 할인 제공하고 또한 교통편이 불편하신분을 위하여 항상 차편을 준비시켜 놓고 있읍니다
● 토론토 장은 미도파백화점은 오리엔탈파레스 건너편에 있어 아주 찾기 쉽고, 뒤에 파킹장이 있읍니다.
● 토론토 장은 귀국선물의 품목을 간추려 알려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핸드백, 화장품, 스카프, 넥타이, 쎄무코트, 런던포-그바바리 라이터, 지갑, 밸트, 전기면도기, 전자품, 우황청심환, 녹용, 재부탈티, , 각종 부로진 조대쉬, 각종보석류, 피에르가르뎅 세타및 티샤쓰, 만싱웨어세타및 티샤쓰, 오메가및 부로바시계, 남여 선글라스등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TORONTO, ONT.
B 536-1692 R. 245-3539

근로자는 會社를 살리고 會社는 근로자 살찌웠다

勞使 똘똘뭉쳐 物資절약운동
年10億모아 7億을 종업원에
釜山·신발류메이커·豊榮

◇매주수요일 오전근무를 마친 근로자들은 분임조별로 모여 물자절약방안을 찾고 그실적을분석、토론한다。【釜山=金海雲기자】

여기는 移動讀者部

【釜山이동독자부=盧基昌기자】 근로자들은 뜻을모아 1년동안 10억원을 절약했다。 사용주는 이들의마음에 보답하기위해 이중 3분의2를 그들에게 되돌려줬다。 직장을 살찌우는일에 곧 자신을 위하는일이 된다는 근로자의 마음과 기업의이윤을 이들에게 주저없이 돌려주려는 사용자의 뜻이 꽃을 피운것이다。

不況속 好況…공장엔 웃음꽃
분임조 活動성과…"有給휴가등 근로조건 좋아요"
求職者 會社문앞에 줄이어

부산시北區 甘田洞에 소재한 신발메이커 豊榮(사장李成雨·62)、스포츠화「나이키」로 알려진 이회사가 이불황의 시대에 호황을누리고있다。 남녀근로자 4천3백명으로 생산신발류의 95%를 수출하는 이업체가 지난해이룩한 수출액은 모두7천8백만달러。 이액수는 종업원1만명업체의 수출고와 맞먹는 수준이다。

신발메이커로서는 후발업체인 이회사가 오늘날 두각을 나타낸것은 사장의 경영술이 뛰어나서도、시설이 좋아서도、머리좋은 사람이 많아서도 아니었다。 한마디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한치의틈도없이 똘똘뭉쳐 벌여온 물자절약과 품질향상의 노력이 정직하게 결실을 거둔 결과였다。

이회사가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회사를 불황에서 건져내자는 뜻이 합쳐지기 시작한것은 지난80년초。 회사측은 노사가 협조하여 면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서는 불황을 이길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됐다。 근로자 스스로가 열의를 갖고 창의력을 발휘해주지않는한 치열한 경쟁에서 이길수없다는 결론에 이른것。

회사는 우선 퇴근시 몸을 뒤지는 검신제도를 없앴다。 이어출석을 호명하는대신 정문에 타임 레코드를 두고 출퇴근을 자율관리、근로자를 믿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시했다。

이와함께 근로조건을 대폭개선、연8일의 유급 휴가제를 실시하고 토요일에는 조기퇴근을 가능토록했으며 주공아파트 2백세대를 임대、근로자들의 숙소를 마련했다。

이러한 회사측의 노력에 근로자들은 곧 반응을 나타냈다。「물자절약생활화」운동이 시작된것이다。 근로자들은『회사가우리를믿고대우해주는뜻을 저버릴수없다』면서 자발적으로호응하고나섰다。

근로자들은 15~20명씩 조를 짜 모두 4백53개 분임조를 만들어 주1회 정기회의를 개최、물자절약계획을 세우고 실적을 분석했다。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되면서『실을 가져왔으면 완전히 쓴다음 버리고 고무줄 하나라도 땅바닥에 버리는 일이 없도록 소중히 생각하자』는 캠페인이 벌어졌다。

회사측은 근로자들의 이같은 노력에 때맞춰『아껴진돈은 다시 근로자에게 되돌려주겠다』고 선언했다。

얻어진 성과중 3분의1은 개인에게、3분의1은 분임조에게되돌려주고나머니3분의1만 회사가 재투자를위해환원한다는 것이었다。회사측은 이같은캠페인을제도화하기위해 사무국을 신설했다。 물자절약을 위한 근로자들의 아이디어수집을 위한「제안제도한」을 설치、분기별로 심사 채택된 안에 대해서는 1위 1백만원、2위 50만원、 3위 20만원등 시상을 했다。

채택된 안은 즉각 사보에 게재、모든 사원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뜻이 합쳐 지난해 10억원을 절약했고 올해는 17억원을목표로 삼고 있다。

물자를 아끼고 절약하겠다는 노력은 품질향상에도 큰 성과를 거두게했고 원가절감에 보탬을 주었다。

지난해 9월 기술부 申李徹씨(27)는 신발의 생창과 스펀지의 새로운 접착법을개발했다。 이부분의 접착불량은 우리 신발업계의 큰고민꺼리였다。 수출에선 항상 클레임의 대상이었다。

申씨는 5개월동안의 연구끝에 그동안 손으로만 처리해오던 스펀지、 생창간의 접착을 압착기로 처리하는데 성공、품질향상에 획기적인 기여를 했다。

새 접착방식은 연간 7천만원의 절감 효과를 내게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생산부 개나리분임조(조장 朴泰榮·37) 10명은 신발생산과정에서 신발의 코부분(주로 운동화류의 레저화) 가죽이 찢어짐으로써 생산비가 높아짐을 고려、5개월동안 연구끝에 고칠수가 있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이름도 없던 이회사는 근로자스스로의 기술개발과 노사협조에의해 하루아침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신발업계 근로자들은 서로 이회사에 들어오려고 줄을섰다。

실제로 이회사는 동업종임금보다 5% 높은 평균 12만 7천원의 봉급과함께 교통비 명목으로 5천원씩 매월 보조해주고 있다。

생산1과 尹모양(22)은불편한점과 시정을 바라는것이 무엇이나는 질문에『전혀 없다』며『분임조활동으로 많은것을 배우고있다』고 했고 생산2과 朴모군(28)은『사용자측이 말뿐이아니라 행동으로 이회사가 종업원전체의것으로 느끼게해준다』고 말했다。

생산부 丁모양(22)은『이곳에있다 다른회사로가면 기술이좋아 대접을받지만 옮기려는사람이 없다』면서『다른곳에있는 친구들이 빈자리가 있는지 알아달라는 부탁을자주한다』고 했고 이회사앞에서 취직하려고 서성대던 金모양(23)은『급료도높지만 분위기가좋아 여기서 일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있다。

1회용 注射器·바늘값 是非
醫保환자엔 별도로 더받아
「肝炎확진경우만 사용」 酬價규정이 문제

간염 전염방지에 필요불가결한 1회용 주사기와 주사바늘이 의료보험혜택에서 제외되어 보험이지연되고있다。

보사부의 의료진료수가규정에따르면 1회용주사기 대금은 간염으로 확진된 환자에 사용된 경우에 한해서만 보험수가로 인정하게 되어있어、병원측은 주사를맞는 환자마다 간염감염여부를 진단하기 곤란해 1회용주사기의 일률적 사용을 꺼리고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간염검사를 할수있는 기구조차 없는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간염확진에 따른 1회용주사기사용규정은 거의 무의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병·의원들은 1회용주사기를 간염확진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환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사용하려면 환자로부터 주사기대금전액을 징수하거나 병원자체의 비용으로 부담해야하는데 그중 어느경우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말하고있다。

서울 鍾路의 J이비인후과의 경우는 의료보험환자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1회용주사기를 사용하고 주사기값을 별도로징수하고있는데 환자에 따라서는 주사기값에 불평을 터뜨리는 사람이있다는것。

한편 서울道峰區雙門5洞 馬이비인후과의 경우는 의원자체의 비용으로 모든 환자에게 1회용주사기를 사용하고있는데 원장 馬龍燮씨(45)에 따르면 이때문에 1개월에 7~8만원에 비용이 더들어가 의사들이 외면할수밖에없다고했다。

간염바이러스는 주사기를 통해서 쉽게감염되는데 영하25도에서도 죽지않고 완전멸균하려면 주사기를 섭씨1백도에서 30분이상 끓여야하지만 일반병·의원에서 충분한멸균을하지못하고주사기와바늘을거듭사용하는경우가 많다。

서울大의대 金丁龍교수는 『간염예방이라는 국민보건의 차원에서 1백원정도인 1회용 주사기 값에 의료보험을 적용해야할 것이며, 그 이전에라도 병·의원들은 유리주사기 소독에 드는 비용을 1회용주사기 구입에 사용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教大生도 해외硏修를"
學長협의회、教育과정개선도 건의

【光州】전국11개교육대학장단은 9일 교대생들에게도 일반대학생들과 같은 해외연수의 기회와 선진지역시찰기회를 부여해달라고 문교부에 건의했다。

이날하오 光州교육대학장실에서 열린 교육대학장 협의회는 이밖에도 교육대학이 4년제대학으로 승격된 후에도 일반대학에 비해 많은 차별대우를 받고있다고 주장、개선책을 관계당국에 요구키로 했다。

이들은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의 경우 1~2학년과정은 교육대학에서 맡고 있으나 3학년이상은 해당지역 국립대로 이관되는 불합리한 교육과정을 개선할것과 현재 서울대사범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초등교장 자격연수를 교감과 장학사과정과 같이 교육대로 이관해줄것등 4개항을 채택했다。

학장단은 또 건전서클지원비를 국립대수준으로 인상해 줄것과 하부협간담회 비용등을 보조、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재정적뒷받침과 2년제 교대출신교사들에게 방송통신대 편입의 특전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鄭】

三湖간부 추가立件
地下鐵붕괴「토류판」設置않고 工事강행

서울 무악재 지하철공사장 붕괴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은 10일 이번사고가 ▲지난3월초부터 암반에균열이생겨 사고가 예상됐었는데도 보강공사를 소홀히했고 ▲토사가쏟아지는것을 막기위해 토벽에 설치했던 토류판을 지난1월 주식회사三湖측이 제거한후 다시설치하지않아 대형화된 것으로보고 三湖의 토목이사 金仁基씨(44) 토목기사 李炯觀씨(31) 서울시 지하철공사감독조원 연재주씨(33)등 3명을 중과실치사상 혐의로추가입건、구속여부를 검토중이다。

이로써 입건된 사람은 三湖현장소장 朴仁華씨(52) 서울시 지하철건설공사 현장감독 權萬洙씨(37) 萬承실업화약주임 張承元씨(39)등을 합해 모두 6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또 서울시와 공사계약을 맺은 三湖가 굴착공사부분을 萬承實業에 하청을 줬으나 굴착공사를 진행하던 萬承이 지난 1월 지하의 암반이 계약과는 달리 공사비가 더드는 경암(硬岩)이라고 주장하자 三湖측이 토류판을 제거시켜 암반감정을 재실시한 후 다시 토류판을 설치하지않은채 공사를 계속했다는 사실을 확인、그 경위를 조사중이다。

한편 매몰실종자 6명의 사체는 10일하오까지도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

本紙등에 公開경고

韓國新聞倫理委員會는 한국일보 3월16일자 11면4단「上道洞주택가연쇄強盜犯人 6명 붙잡아」제하의 기사가 봉욕한 부녀자의 주소를 공개했다는 이유로、京仁日報 3월23~27일자 8면 인재소설「幻女의 목소리」는 변태적인 성희장면을 묘사했다는 이유로 각각 公開警告했다。

百想 張基榮社主 5周忌
오늘 倉隅里묘소서 간소한追慕式

한국일보 創刊발행인인 百想 張基榮社主의 5周忌추모식이 11일상오11시 경기도廣州郡東部邑倉隅里 고인의묘소에서 간소하게 열린다。

추모식에 참석할 社友·친지를위한 버스가 상오9시50분까지 본사주차장에 대기하며、「百想追念錄書藝展」이 열리고있는 安國洞로터리 百想紀念館에는 이날하루동안 분향소가 마련된다。

意識改革 TV프로
劉총리 내일밤對談

劉彰順국무총리는 12일하오 8시20분 KBS(채널1)및 MBC TV의「正義社會 위한 意識改革」에 관한對談프로에 출연한다。

劉총리는 약 40분간 진행될 이 프로를통해 지난2년간 各界에서 진행되고 있는 社會改革및 정화운동에 대한 평가와 반성、그리고 이에대한 앞으로의 實踐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東映등 5개 유아원
李順子여사 돌아봐

【釜山=尹國炳기자】 대통령영부인 李順子여사는 10일상오 釜山市東萊區에있는 社稷洞유아원과 東映유아원을 차례로 시찰하고 어린이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李여사는 이어 시내 여성회관에서 釜山市및 慶南道의 기관장부인및각계여성대표들과오찬을함께하며환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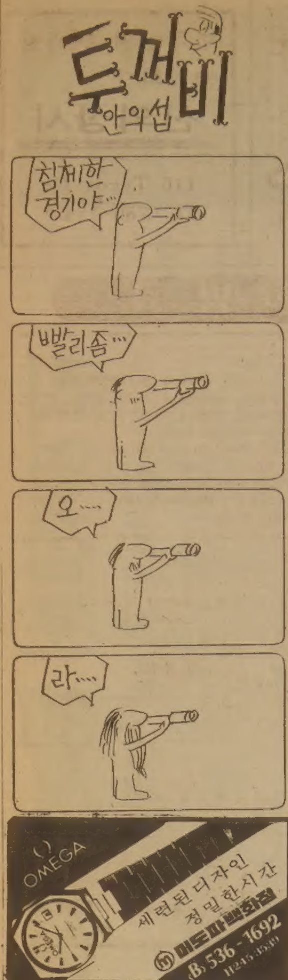
李여사는 이날하오에는 시내東區水晶洞소재 청포도유아원과水晶2洞 새마을유아원및 西區甘川洞의 새마을유아원을 각각 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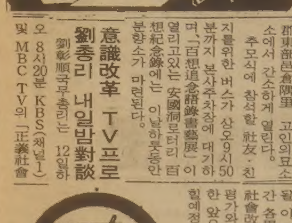
보이드女史 별세
<徐載弼박사 큰따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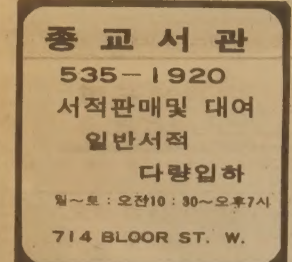
【서울=聯合】 舊韓末개화운동의 주역이며 독립운동가였던 松齋徐載弼박사의 큰따님인 스테파니·제이슨·보이드여사(84)가 지난5일 美國펜실베이니아州 미디어市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보이드여사의 별세로 徐박사의 혈육으로는 뮤리엘·제이슨여사(81)만이 남았는데 그녀는 현재 徐載弼박사가 살던 미디어市의 집에서 혼자 살고있다。

보이드여사와 제이슨여사는 모두 자손이없다。







종교서관
535-1920
서적판매및 대여
일반서적
다량입하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714 BLOOR ST. W.

교회안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8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30 오후 2:00 영어설교 오후1:30 금요저녁 9: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시민교회	조성관	오후예배 1:00 성경공부 2:30	148 Thornridge Dr. Thornhill	266-4918
대한교회	조남유	주일오후 2시	3819 Bloor St. W.	886-1198
순복음토론토	이필주	주일오후 2:00 금요기도 8: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동부한인장로	홍순관	주일대예배11:30 수요예배오후 7:30 영어예배 오전10:30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 6:30 주일 낮 12:00 주일오후 2: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장희선	주일낮 11시 수요예배 8시 주일찬양예배7시 주일새벽기도 6시	135 Briscoe St.E.	686-6302 전화선교 439-6331
런던한인교회	신용규	주일오전11:00 금요기도 밤10시 주일오후 2:00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성도교회	김용진 정춘수	주일오후 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30 성경공부 2:40 토요기도 밤7시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 7:00 주일오후 1:00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장로	김경전	주일오후 1:30 수요오후 7:00	7 Gretna Ave.(Victoria Pk.& Lawrence)	281-5706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수요새벽5:30 중고등영어 오후1시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성령교회	김관선	새벽예배(토,일):아침6시 금요성경공부:저녁9시 주일오후 2:00	379 Kenneth Ave.	275:4650
서머나감리교회	박준하 김욱희	주일영어 1:00 주일성경 1:00 주일예배 2:00 수요예배 7:30	75 Canterbury Place Willowdale, Ont.	751-3611 752-9860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평일기도 오후2시 토요집회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Tor.	698-5363
베다니성결교회	김요환	주일오후 1시 성경공부 주일 오후3시	2799 Weston Rd.	248-9709 248-1653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오후 1:30 4:00 수요오후 7:30	65 Mayall Ave. Downsview	977-5202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00 금요일 오후6시 성경공부	1272 Weston Rd.	242-4964 665-2866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30 수요저녁 7:30 금요저녁10:30	126 O'connor Dr. at Pape Ave.	423-9880 423-8400 (복음다이알)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00 금요오후 8:00 주일오후 4: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조창환	수요저녁 7:30 일요오후 2:3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감리교회	어용순	주일오후 1:30 금요예배 7:30	2385 Warden Ave.	444-3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용출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30	963 Pharmacy Ave.	755-9766 755-1528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630-4284
한인중앙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9:00	502 Bathurst	274-5305 전화설교
천주교회	고종욱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83 Power St.Tor.	863-0415
침례교회	홍신웅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00 주일오후 4:30 금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281-7772
키치너·워터루 한인교회		주일오후 1:30	54 Queen St. 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00, 수요오후 7:30 T. V. 예배 8:30~9:00A. M. CH. 79	1183 Davenport Rd.	535-6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30 예배 3:00 주일학교 3: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선교교회		주일오후 1:00	1 Greenland Rd.	444-8002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LISBON AUTO COLLISION INC.
● 토잉써비스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이영두, 이건학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한국인의 도매상
주식회사
신의상사
116 Tycos Dr.
☎ : 789-7544

식품점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전화: 248-513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삼 복 식 품
주 7일 영업,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신용조합

한인신용조합
641A BLOOR ST. W.(2nd Fl) TOR. ONT. M6G 1L1
전화 : 533-9387

악기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약국

돈 밀 약 국
전화 : 429-4117 이 요 한

SUPER × DRUGS
전화 : 368-2746 조 남 오

WILLER'S PHARMACY
전화 : 656-3351, 656-3247 양 문 정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시설 · 판매 · 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전화 : 746-3840~1(B) 493-9945(R) 김 봉 균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여행사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전화 : 928-3335 김 현 두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복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운전학교

오행근운전학교
전화 : 423-3035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인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주소록 출판, 도서출판, 기업광고 포스터및 플라이어, 청첩, 봉투, 인보이스, 주문서등 인쇄및 디자인.
고급 4색인쇄, 고급장정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전화 : 746-0675

이삿짐및 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장의사

장 의 사 (R.S. 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 E. (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43, (R) 493-8792 송 창 섭

O. K. AUTO BODY
수리중 차대여, 모든 보험관계
138 SIXTEENTH ST.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 533-2157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 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전화: 960-5736(B), 844-0178(R)

공인회계사 이명세
사무실:1454 DUNDAS ST. E. SUITE 110
전화: 273-7300 MISSISS.

정필주 회계사무소
전 C.A.Firm Accountant.
4750 Jane St. Suite No.608 전화: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W. WINDOW SHADE
전화:(B)252-4857 (R)252-6602 유원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439-6277 Mr.박

학교

Using Language Labolatory,You Can learn English within 3 months(집에서)
전화 : 533-7324, 533-4966

Y 어린이 학교 (김창열)
☎536-1166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희자)
☎960-0074

샛별한글학교 (스카브로)
☎267-2292

김미영 한국민속무용연구소
☎ : 499-5079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보약제와 신경통약이 다량 수입되었읍니다.
교민들에게 특별 염가 제공코져 합니다.
전화문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 (465 DUNDAS W.)
전화 : 596-8407,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한약상사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743-0752 서 춘 봉

서 울 한 의 원
한의사 김 장 석 (New York, U. S. A.)
전화 : 1-212-762-4694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화랑

KIM'S ART GALLERY
각종 유화, 동양화 도매, 각종 Picture Frame
1286 Weston Rd. 전화 : 243-0233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자동차 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 : 247-7161 이 한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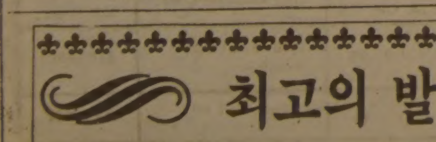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 : 264-2311 조 의 문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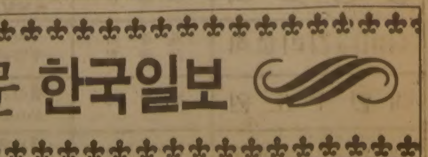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전화:745-6792(Mr.우)

다년간의 경험으로 성심 성의껏 봉사해 드리겠읍니다.
전화문의도 받읍니다. 페인트·월페이퍼
전화 : 746-6962 (Mr. Lee)

광고료 · 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현명한 광고의 선택은 현명한 투자방법입니다.
* 사업확장을 계획하십니까?
* 광고국에 문의하십시오.
533~2361~4 (월~토)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頂上의 신문 한국일보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렌.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일요일에 가게 캐쉬어 하실분
(유경험자 원함) 미씨사가 지역
전화 : 828-0242

남자 주방 헬퍼와 여자 웨이트레스 구함.
628 BLOOR ST. W.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전화: 534-5068

한국음식(밑반찬)에 조예가 깊으신분 연락바랍니다.
Full Time과 Part Time 가능
전화 : 749-0579

맥스 밀크에서 일하실 캐셔구함.
미시사가 지역
전화 : 278-4867

Full Time 매니져 혹은 가게를
맡아서 하실분 구함. 스카브로지역
유경험자 우대함 전화 : 281-5730

조용한 동네안에 위치한 미장원 장소 Rent
원하시는 분이나, 미용사자격증 가지신분 구합니다.
전화 : 851-1731, 851-3866

지렁이 잡이 경험이 많은, Mrs. 윤 이 지렁이 잡으실 분 구합니다. 특별우대함.
전화 : 291-4547

유경험자 캐쉬어 구함(남.녀관계없음)
서부지역 전화 : 742-0800

지렁이 잡으실분, 당일지불(Cash)
친절하고 편안한 서비스로 우대함. 경험자 환영
전화 : 537-6345(톰), 531-0773(김)

81년도 7, 8월경에 아버지와 같이 이민온 서현주씨를 찾읍니다.
전화 : 633-5231, 669-6714 (유 선 옥)

유경험자 캐셔구함(남녀관계없음)

다운타운지역

전화 : 598-2546

구 혼

독신남, 대졸, 예군장교예편, 신장 175cm
체중 70kg, 재산있고 회사 중견사원역임.
독신녀(미혼 혹은 이혼녀) 원함. 기독교인이거나
앞으로 기독교를 믿으실분. 사진, 이력서 동봉.
연락처: 955 WARWICK CRT. #402,
(BURLINGTON, ONT. MR. LEE)

매매및 양도

틀림없는 이윤을 보장하는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4,000, 아스킹: $35,000+스탁
전화 : 465-4385

여자 혼자할 수 있는 그로서리 겸한 버라이어티 급매. 시설비만 받고 매매할 예정임.(꼭히 관심있는 분 내방바람)
61 Main St.

아파트 4채가 있는 집수리 끝낸 건물팝니다.(서쪽끝) 아스킹 : $199,900
전화 : 465-2073 오전 10:00 - 밤12:00

BECKER MILK 후렌차이즈 매매
꼭히 관심있으신 분 내방바람
4746 Dundas St. W. (Islington)

건물및 상점 (그로서리 & 버라이어티) 급매
주매상 : $8,000 아스킹 : $229,500
237 PARKLAWN RD.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성업중인 그로서리 및 버라이어티 딸린
건물 급매
전화 : 532-8260

Soft Icecream기계팝니다.
관심있으신분 연락바랍니다.
전화 : 279-8871

가게 급매(4 베드룸 건물포함)
주매상 : $3,500~$4,500
가격 : $84,000 + 스탁 (First Mortgage 13.5%,$51,000
Second Mortgage, Bank에서 $20,000 가능)
전화 : 1-383-8232

버라이어티 스토아와 2베드룸 포함한 건물 팝니다. Four Unit, Commercial(Two Unit Rent 하였음). 번화한 지역으로 오타와에서 35Mile 서쪽.(Arnprior).
가격 : $135,000 Mortgage : 12¾%
전화 : 1-613-623-6896 (월~토)

성업중인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3,000 렌트: $300(Mon.) 리스: 5년
2988 Lakeshore Blvd. W.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19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399 etc.
937 QUEEN ST. W.
전화 : 364-0984 REMA FURNITURE

MODERN CLOTHING STORE FOR SALE
중앙지역, 적당한 가격에 급매코져 함.
전화 : 465-2073 10:00a.m.-12:00p.m.

"그로서리 스토아 급매" Good Location, Good Lease.
Asking Price : $12,000
전화 : 652-1647 (Mrs. Maria)

Using Language Labolatory, You Can learn English within 3 months(집에서)
전화 : 533-7324, 533-4966

Grocery, Variety, Dry Cleaning
Best Location for Good Money Making.
Very Reseasonable price for Sale. 783-0134 (Bobby)

성업중인 쥬니어 데파트먼트 스토아 급매
Open Hour : 월-토 (9:00a.m-9:00p.m) 꼭히 관심있는분의 연락바람. 전화 : 1-576-7021, 1-576-9899(밤9시이후)

성업중인 미니 수퍼마켓 급매
1주5일 영업 (화요일-토요일)
문의전화 : 259-7422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하우스 렌트

1베드룸, 한국인으로서 미혼직장여성원함
월세$200 Don Mill지역
(언제라도입주가능)전화:449-3071

기관및단체

- 총 영 사 관 : 598-4608
- 한 인 회 : 755-9288
- 노 년 회 : 755-8079
- 실업인협회 : 752-7771
- Y M C A : 536-1166
- 외 환 은 행 : 364-2890
- K A L : 862-8250

가 구 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전화 : 535-0647, 465-1722 송 관 현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도 서 판 매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매매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R) 298-8558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황 순 일)
전화 : 481-3443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David Chae (채 준 실)
전화:633-7892(R)497-8900(B)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248-2437(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전화 : 248-2957(B) 247-6875(R)

ANNIE'S BEAUTY CARE CENTER
6093 Yonge St. (영 × 핀치)
전화 : 223-7884 Mrs. Lee

백 화 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536-1692

보 험

Canada Life (강 학 수) ☎868-0922

Sun Life (김 신 명) ☎922-3111

김 종 조 종합보험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 홍 량) ☎482-0166

Sun Life (백 웅 빈) ☎497-3800

조 규 혁 종합보험 ☎233-6236

Sun Life (윤 호 영) ☎922-3111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화석) 10 SUNRISE AVE. UNIT203, 2R1 전화 : 759-9505 (5시이후)

각종서류 번역및 법정통역,
정부기관 통역등 해드림
전화 : 281-1677 이 영 화 (전 대학강사)

불 교

대 각 사
11 Dawson Ave. Tor.Ont. 전화 : 463-8998

불 광 사
288 Hownslow Ave. 전화 : 223-9152

신 련 사
16 Gwynne Ave. 전화 : 532-3491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전화 : 535-7772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무 지 개 칼 라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COMMERCIAL · ART PHOTOS · WEDDINGS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MISTER O FOR MEN
전화 : 964-2606, 869-0589, 275-2187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스 포 츠

브랜든 운동구점(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취급
337 BLOOR ST. W. ☎ : 598-3732 이 건 영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Kipling × Albion)
☎ : 742-1205(B), 745-1632(R) Mr. 마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신축 복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전기시설 · 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전화: 270-3118 오 현 구

FINE WOODWORK 목공소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전화: 676-1173, 769-9468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싸우나 설치, 진열장 찬장등 가구제작

VACUUM CLEANER 출장수리
카페트 CLEANER & SHAMPOOER
전화 : 881-4915 Mr. 조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클 링. 턴 하 우 스
693 BLOOR ST. W.
전화: 535-9541 김 영 규

한 국 관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대소연 200석 완비
OPEN 11 : 00AM~1 : 00AM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국일보 광고문의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 한국일보 안내광고 *

2ND CLASS MAIL NO. 5248